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 秦漢시대 馬政과 그 전개

2017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東洋史學科

김 보 람



# 秦漢시대 馬政과 그 전개

指導教授 金 秉 駿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17年 4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東洋史學科

김 보 람

김보람의 碩士 學位論文을 인준함

2017年 6月

委 員 長 \_\_\_\_\_ (印)

副 委 員 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 국문초록

자원의 확보와 유지는 국가의 체제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초기 국가나 도시의 생성 및 발전의 動因을 청동 원료나 소금 등 중요한 자원의 획득과 운송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의 독점 생산과 장악을 통해 국가권력이 정당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은 당시 인민의 삶과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했던 ‘기반물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추구한 지배 원리에 따라 국가가 장악하려 했던 자원이 결정되었을 것이며,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과 방침은 국가의 제도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국가에 있어서 기반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그에 수반되는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운영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반물자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당시 그 사회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 나아가 그 사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기반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래 말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전 근대 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자원이었다.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이래 국가의 방어와 확장을 위한 군수품으로, 帝國을 통합하고 연결하기 위한 교통체계의 일부로 모두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대 중국은 말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전술 상 騎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문서 행정을 위한 郵驛의 설치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체계화된 새로운 제도가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秦漢시대 馬政 연구는 대부분 말의 품종 개량이나 養馬 기술의 발전 상황 등 농업사 방면이 가장 두드러졌다. 중국에서 이른 시기부터 養馬를 중시했고 꾸준히 좋은 말을 생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군사 방면에서 騎兵의 종류, 병참 보급 조달 상황에서의 말 이용 등을 조명한 연구, 傳驛馬의 이용 등과 같이 교통 문제에서 접근한 연구와 신분에 따른 乘輿 권한의 차이 등 의례적인 방면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체 사회체제 내에서 기반물자로서 말이 갖는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

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가 馬政에 대한 국가의 관심, 그리고 기본적 제도를 지적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까닭은 일차적으로 관련 자료의 한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秦漢시대의 율령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서 그 한계를 다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睡虎地秦簡과 二年律令은 물론, 지금까지도 속속 공표되고 있는 嶽麓秦簡 내의 관련 율령을 보면, 율령 전체 내에서 말과 관련된 조문이 많이 출현할 뿐 아니라 예상 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율령 내부에서 마정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秦漢시대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특히 국가가 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수급을 국가가 ‘직접’ 확보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막연히 말의 수급을 관장해야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법령이 아니라,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관리와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 그리고 그 비용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정책 등이 고안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출토 자료를 적극 활용할 경우 진한시기 기반물자를 확보하려는 국가의 구체적 방식, 이른바 ‘官營’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이러한 인식과 정책 모두 변화한다는 점도 분명한 만큼, 전국시대와 진한제국의 통일 이후, 특히 북방민족과의 관계 변화에 주목하여 그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本稿는 秦漢시대 국가는 어떠한 제도나 체제로써 말을 확보하고 관리하였는지, 그리고 말의 수요 및 공급이 급증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시켰으며 기반물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I 장 1절에서는 秦漢시대 국가가 말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원칙 하에서 취급하고 제도를 만들었는지 살펴보았다. 秦漢 律令의 내용을 모두 살펴 말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추려본 결과 秦漢律 내에서 말 관련 규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반에 걸쳐 말과 관련한 법률이 지극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추려낸 律令을 다시 내용에 따라 나뉘도록 분류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여 秦漢시대 馬政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秦漢시대에는 말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관련 업무가 각각 분산되어 있되, 상황에 따라 다중의 부서 혹은 책임자가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은 律令으로 규정해 일률적인 처리를 강제했으며, 철저히 官吏에게 책임을 지우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養馬의 부담을 전가하였다.

이처럼 秦漢시대 馬政의 방침은 사료의 지급부터 이용까지 律令에 의거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말의 관리 전반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것이었다. 말은 국가의 기반물자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장악하는 국영 위주의 양마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는 엄청난 경제적·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II장 1절에서는 秦漢代 말의 수요가 어떠한 추세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가에서 말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말의 수요가 증가하면 국가가 투입해야 하는 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증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문헌 사료에 따르면 戰國末부터 기병의 도입과 郵驛 체계의 정비로 점차 말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말의 수량도 늘어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2절에서는 養馬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養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말의 사료였다. 일단 말에 지급하는 사료의 비용을 구하고 사람의 식비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律令에 정해진 바에 근거하면 말의 사료비용이 사람의 식비에 비해 세 배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官營 養馬의 비용은 民間에게서 거두는 芻藁稅로 충당했기 때문에, 말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부담은 커졌다. 일반 民이 내야 하는 芻藁稅는 錢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매년 약 71錢이었는데, 이는 열흘간 노동했을 때의 임금에 상당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었다. 특히 芻藁 생산량의 90% 이상을 국가에서 징수했기 때문에, 비용의 측면으로 보아도 엄청난 부담이었을 뿐더러 농민이 養馬할 수 있는 잉여 芻藁를 남김없이 가져



가는 셈이었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국가 제도의 馬政 체계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시기별로 변화하는 내용과 그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前漢 초기의 律令인 二年律令을 秦律과 비교했을 때 芻藁稅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秦律에 규정된 芻藁 납부액보다 15斤, 즉 약 2錢이 감액된다는 것과 縣의 사용분을 제외한 芻藁는 모두 錢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가 비축할 수 있는 실물 芻藁의 감소를 의미하였다. 芻藁는 馬牛의 가축인 만큼 실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漢初의 국가 관리 체계의 이완 때문이었고, 동시에 민간 양마를 권장하는 국가의 의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말을 기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타적 官營 양마에서 차츰 민간 양마를 허용·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말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시금 국가에 의한 말의 관리 방침을 채택하였다. 빈번한 전쟁이 일어났던 景帝·武帝 시기에는 말을 중앙으로 집중시켜야 할 수밖에 없었고, 漢初에 芻藁稅를 감액했던 조치와는 달리 군마 사육의 명목으로 미성년자의 세금을 3錢 인상한다. 세금의 변화와 맞물려 국가의 馬政 역시 官營 양마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조치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빈도가 줄어드는 武帝 이후에는 다시 漢初와 같이 관영 양마의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회귀한다. 재정문제를 이유로 景帝·武帝 시기의 養馬 정책을 차례차례 폐지하고 관영 養馬場을 축소하거나 없앴으로써, 양마의 관영생산 비중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다. 증액된 세금도 감소시켰다. 대신 민간 양마를 권장하여 언제든 필요시 민간으로부터 말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武帝 이후에는 민간에서 私馬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官에서 騎馬나 傳馬를 민간에서 구입한다는 사례는 당시 이미 일상적으로 민간의 말 매매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시기의 河西四郡의 개척으로 인한 胡市의 성행과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관영 양마를 축소하고 민간 양마로 대체하는

국가의 기대를 실현가능하게 하였다. 즉 말의 수요나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적절한 馬政의 변화를 통해, 국가는 기반물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확보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고대 중국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며 자원의 관리 또한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이러한 기반물자의 관리가 확장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츰 官이 모든 주요 산업을 독점하겠다는 방침을 포기하고, 점차 민간에게로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결코 중앙집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제나 다시 필요에 따라 중앙으로 물자를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기층조직까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漢은 제국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표면적으로는 秦代보다 방임적으로 보였을지라도, 그 이면은 간접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민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漢帝國이 보다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장악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주요어 : 秦漢, 馬, 馬政, 芻稟, 律令, 騎馬, 騎士

학 번 : 2013-20039



# 목 차

## 국문초록

머리말 .....	1
I. 국가 기반물자로서의 말[馬] .....	5
1. 秦漢律令 內 말 관련 조문 .....	5
2. 말의 관리 체계 .....	13
II. 말의 수요 증가와 사회적 부담 .....	24
1. 古代 中國에서의 말의 수요 증가 .....	24
2. 養馬 비용과 芻藁稅 징수 .....	30
III. 漢代 馬政의 변화 .....	41
1. 漢初 민간 양마로의 점진적 이관 .....	41
2. 昭帝 이후의 추이 .....	51
맺음말 .....	58
參考文獻 .....	62
中文摘要 .....	70



## 머리말

자원의 확보와 유지는 국가의 체제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초기 국가나 도시의 생성 및 발전의 動因을 청동 원료나 소금 등 중요한 자원의 획득과 운송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의 독점 생산과 장악을 통해 국가권력이 정당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1)</sup> 이러한 자원은 당시 인민의 삶과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했던 ‘기반물자’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추구한 지배 원리에 따라 국가가 장악하려 했던 자원이 결정되며,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과 방침은 국가의 제도로 표현된다. 국가에 있어서 기반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그에 수반되는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운영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반물자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당시 그 사회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 나아가 그 사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기반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래 말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전 근대 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자원이었다.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이래 국가의 방어와 확장을 위한 군수품으로, 帝國을 통합하고 연결하기 위한 교통체계의 일부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고대 중국은 말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전술상 騎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문서 행정을 위한 郵驛의 설치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체계화된 새로운 제도가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秦漢시대 馬政 연구는 대부분 말의 품종 개량이나<sup>2)</sup> 養馬 기술의 발전 상

---

1) Li Liu and Xingcan Chen, *State Formation in Early China*, London: Duckworth, 2003.

2) 謝成俠, 『中國養馬史』, 北京: 科學出版社, 1959; 余華青·張廷皓, 「秦漢時期的畜牧業」, 『中國史研究』 1982-4; 郭興文, 「論秦代養馬技術」, 『農業考古』 1985-1; 龔留柱, 「秦漢時期軍馬的牧養和徵集」, 『史學月刊』 1987-6; 梁家勉 主編, 『中國農業科學技術史稿』, 北京: 農業出版社, 1989; 高敏, 「論秦漢時期畜牧業的特徵和局限」, 『鄭州大學學報』 1989-2; 宋濤, 「我國古代的養馬業」, 『甘肅社會科學』 1994-5; 雍際

황<sup>3)</sup> 등 농업사 방면이 가장 두드러졌다. 중국에서 이른 시기부터 養馬를 중시했고 꾸준히 좋은 말을 생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군사 방면에서 騎兵의 종류,<sup>4)</sup> 병참 보급 조달 상황에서 말의 이용<sup>5)</sup> 등을 조명한 연구,<sup>6)</sup> 傳驛馬의 이용<sup>7)</sup> 등과 같이 교통 문제에서 접근한 연구와 신분 에 따른 乘輿 권한의 차이 등 의례적인 방면에서 접근한 연구도<sup>8)</sup> 있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 馬政 기구의 분석이라든지<sup>9)</sup>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말의 需給 상황을 고찰한 연구<sup>10)</sup> 등 국가의 체제 내에서 말이 갖는 위상을 고찰한 연구들이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말의 관리를 전담하는 馬政 기구를 설치하고, 물가를 조절하여 말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馬政 에 개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체 사회체제 내에서 기반물자로서

春, 『西漢牧苑考』, 『中國歷史地理論叢』 1996-2; 李群, 『我國古代的養馬技術』, 『古今農業』 1996-3; 楊釗, 『先秦時期的畜牧業』, 『農業考古』 1997-3; 王裕昌·宋琪, 『漢代馬政與養馬高峰』, 『西北大學學報』 2004-6; 安忠義, 『漢代馬種的引進與改良』, 『中國農史』 2005-2.

- 3) 郭興文, 『論秦代養馬技術』, 『農業考古』 1985-1; 禹平, 『論秦漢時期養馬技術』, 『史學集刊』 1999-2.
- 4) 白建鋼, 『西漢步、騎兵兵種初探』, 『西北大學學報』 1986-1; 安忠義, 『漢武帝時期騎兵的興起與軍制改革』, 『煙臺師範學院學報』 2005-4.
- 5) 黃今言, 『東漢軍事後勤的幾個問題』, 『江西師範大學學報』 1996-2.
- 6) 陳恩林, 『中國古代騎術和騎兵考源』, 『吉林師範大學學報』 1991-2; 彭文, 『秦代的騎兵』, 『軍事歷史』 1994-5; 何平立, 『略論西漢馬政與騎兵』, 『軍事歷史研究』 1995-2; 張濤, 『秦漢騎兵起源及其發展新探』, 『絲綢之路』 1999-1; 安忠義, 『先秦騎兵的誕生及演變』, 『考古與文物』 2000-4; 孟古托力, 『騎兵建設推動養馬業的發展 - 戰馬馬源之分析』, 『北方文物』 2005-3.
- 7) 森鹿三 著, 姜鎮慶 譯, 『論居延簡所見的馬』,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戰國秦漢史研究室 編, 『簡牘研究譯叢』 第1輯,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劉輝, 『西漢傳驛馬之來源考述』, 『樂山師範學院學報』 2011-2; 郭俊然, 『漢代郵驛職官考 - 以出土資料爲中心』, 『五邑大學學報』 2014-1.
- 8) 周作明, 『秦漢車馬駕御賜馬制度管見』, 『廣西師範大學學報』 1988-2; 張仲立, 『關於鹵簿制度的幾點研究 - 兼論周五路乘輿制度特點』, 『文博』 1996-6.
- 9) 黃敬愚, 『簡牘所見西漢馬政』, 『南郡學壇』, 2006-5; 沈明得, 『漢代馬政研究』, 臺灣國立中興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陳直, 『漢代的馬政』, 『西北大學學報』, 1981-3.
- 10) 정하현, 『秦漢代 말[馬]의 이용과 需給 構造』,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1, 서울: 지식산업사, 1994.

말이 갖는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가 馬政에 대한 국가의 관심, 그리고 기본적 제도를 지적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까닭은 일차적으로 관련 자료의 한계 때문이었다. 秦漢시대의 馬政 체계가 완비되지 못하고, 유목 세력과의 경쟁과 융합이 있었던 唐代 이후에야 비로소 고대 馬政의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인식하는 것은,<sup>11)</sup> 秦漢의 廐苑律이 唐代의 廐庫律에 비해 빈약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秦漢시기 율령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睡虎地秦簡과 二年律令은 물론, 지금까지도 속속 공표되고 있는 嶽麓秦簡 내의 관련 율령을 보면, 율령 전체 내에서 말과 관련된 조문이 많이 출현할 뿐 아니라 예상 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율령 내부에서 馬政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秦漢시대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특히 국가가 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수급을 국가가 ‘직접’ 확보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막연히 말의 수급을 관장해야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법령이 아니라,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관리와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 그리고 그 비용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정책 등이 고안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출토자료를 적극 활용할 경우 秦漢시대 기반물자를 확보하려는 국가의 구체적 방식, 이른바 ‘官營’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이러한 인식과 정책 모두 변화한다는 점도 분명한 만큼, 戰國시대와 秦漢제국의 통일 이후, 특히 북방민족과의 관계 변화에 주목하여 그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처럼 本稿는 秦漢시대 국가는 어떠한 제도나 체제로써 말을 확보하고 관리하였는지, 그리고 말의 수요 및 공급이 급증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시켰으며 기반물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11) 濱谷秀雄, 「唐代馬政の一斑」, 『日本大學文學科研究年報』 3-3, 1936; 朱利民·張憲民, 「唐代馬政」, 『唐都學刊』 1994-10; 최재영, 「唐 前期 馬政과 隴右 牧地 經營」, 『中國古中世史研究』 21, 2009.



와 통제를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I 장에서는 秦漢시대 국가가 말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원칙 하에서 취급하고 제도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국가의 통치이념을 반영하는 율령 내에 말이 언급되는 부분을 모두 추려내어 말에 관한 국가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하겠다. 이후 추려낸 율령을 다시 내용별로 분류하여 秦漢시대 馬政의 체계를 복원함으로써 고대 중국의 자원 관리 방침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할 것이다. II 장에서는 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부담을 살펴보겠다. 또한 그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민간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웠고, 또 그로 인해 파생된 정책이 없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한다. III 장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가 어떻게 말을 관리하고 통제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I. 국가 기반물자로서의 말[馬]

## 1. 秦漢律令 內 말 관련 조문

律令은 국가운영과 사회질서유지에 관한 지배층의 입장과 통치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律令에 무엇이 얼마만큼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운영의 주요방향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秦漢시대 국가운영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 위해 秦漢 律令에는 말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廐苑律에만 치중하지 않고 秦漢 律令을 모두 살펴 말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먼저 睡虎地秦簡 秦律의 전체 律名 18개 중 말과 직접 관련된 律名은 廐苑律이 있다. 여기에는 馬牛 관리 면에서 耕牛의 상태를 평가하여 성적이 좋으면 상을 주고 나쁘면 근무일수를 감하는 考課 방법,<sup>12)</sup> 馬牛가 죽으면 관부에서 검사한 뒤 그 고기는 팔고 가죽 및 뿔 등은 소속 관청에 납입할 것을 지시하는 사후처리 규정<sup>13)</sup> 등, 말과 소의 사육과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律名과 그 내용이 모두 말과 관련되어 있는 廐苑律과는 달리, 律名

12) 『睡虎地秦墓竹簡』(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0. 이하 『睡虎地秦簡』으로 略稱) 『秦律十八種』 廐苑律, p.22, “以四月、七月、十月、正月膚田牛. 卒歲, 以正月大課之, 最, 賜田嗇夫壺酉(酒)束脯, 爲早<皂>者除一更, 賜牛長日三旬; 殿者<sup>13)</sup>, 誅田嗇夫, 罰冗皂者二月. 其以牛田, 牛減絮, 治(咎)主者寸十. 有(又)里課之, 最者, 賜田典日旬; 殿, 治(咎)卅.”

13)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廐苑律, p.24, “將牧公馬牛, 馬【牛】死者, 亟謁死所縣, 縣亟診而入之, 其入之其弗亟而令敗者, 令以其未敗直(值)賞(償)之. 其小隸臣<sup>16)</sup>疾死者, 告其□□之; 其非疾死者, 以其診書告官論之. 其大廐、中廐、官廐馬牛毆(也), 以其筋、革、角及其賈(價)<sup>17)</sup>錢效, 其人詣其官. 其乘服公馬牛亡馬者而死縣, 縣診而雜賈(賣)其肉, 卽入其筋、革、角, 及索(索)入其賈(價)錢. 錢<sup>18)</sup>少律者, 令其人備之而告官, 官告馬牛縣出之. 今課縣、都官公服牛各一課, 卒歲, 十牛以上而三分一死; 不【盈】<sup>19)</sup>十牛以下, 及受服牛者卒歲死牛三以上, 吏主者、徒食牛者及令、丞皆有罪. 內史課縣, 大(太)倉課都官及受服者.”

그 자체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정작 그 내용을 보면 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律이 적지 않다.

田律은 토지와 산림수택과 관련한 법률로, 田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환경 보호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고, 심지어 통틀어 보면 田律에서 馬牛와 관련된 조문이 전체 조문의 반 이상에 이른다. 예컨대 馬牛를 사육하는 곳에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sup>14)</sup> 馬牛의 사료로 사용되는 芻藁의 납부나 보관과 같은 내용들이 그것이다.<sup>15)</sup> 田律은 田地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되었음에 틀림없지만, 그곳에서 소출되는 곡물만큼이나 芻藁의 수확과 관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芻藁의 용도 즉 말의 사육이 곡물 수확만큼이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倉律은 창고 관리에 대한 법률이다. 그 내용도 대부분 곡물의 저장 및 출납에 관해서인데, 衣食을 지급할 때의 대상과 상황 구분과 그 과정을 보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도 말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말의 사료가 되는 芻藁의 出納과 傳馬의 사료 지급 문제가 倉律 속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sup>16)</sup> 傳馬에게 사료를 줄

14)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田律, p.20, “春二月, 毋敢伐材木山林及雍(壅)隄水. 不夏月, 毋敢夜草爲灰, 取生荔·麋(卵)鷃, 毋□□□□□毒魚鱉, 置罔(網), 到七月而縱之. 唯不幸死而伐棺(槨)享(槨)者, 是不用時. 邑之斂(近)皂及它禁苑者, 驛時毋敢將犬以之田. 百姓犬入禁苑中而不追獸及捕獸者, 勿敢殺; 其追獸及捕獸者, 殺之. 河(呵)禁所殺犬, 皆完入公; 其它禁苑殺者, 食其肉而入皮.”; 『二年律令與奏讞書』(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이하 『二年律令』으로 略稱)『田律』, p.192, “諸馬牛到所, 皆毋敢穿疥及[置它機], 穿疥及置它機能害人、馬牛者, 雖未有殺傷也, 耐爲隸臣妾. 殺傷馬牛, 與盜同法. 殺人,<sup>251</sup> 棄市. 傷人, 完爲城旦春.<sup>252</sup>”

15)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田律, p.22, “乘馬服牛藁, 過二月弗藁、弗致者, 皆止, 勿藁、致. 藁大田而毋(無)恒籍者, 以其致到日藁之, 勿深致.”; 同書『秦律十八種』田律, p.21, “入頃芻藁, 以其受田之數, 無狼(壘)不狼(壘), 頃入芻三石、藁二石. 芻自黃蘗及麋束以上皆受之. 入芻藁, 相輪度, 可毆(也).”; 同書『秦律十八種』田律, p.21, “禾、芻藁徹(撤)木、荐, 輒上石數縣廷. 勿用, 復以荐蓋.”

16)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倉律, p.27, “入禾稼, 芻藁, 輒爲瘡籍, 上內史. • 芻

때, 한 번에 8마리씩 함께 사료를 먹인다든지 추가로 지급하는 횟수는 하루에 한 번을 넘길 수 없다는 등<sup>17)</sup> 아주 사소한 점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말의 사육 細則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傳食律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驛傳의 식사 공급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작위에 따라 말의 사료를 지급할 것을 일러둔다.<sup>18)</sup>

이처럼 廐苑律 이외의 편목에서도 말과 관련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제까지의 律名은 그나마 비교적 말과의 연결고리가 쉽게 짐작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가축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律에서도 말이 언급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

效律은 물자의 회계 검사를 골자로 하는 편목으로, 그 중에서도 병기·갑옷 등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품과 도량형에 관하여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부의 물자를 점검하여 규정된 액수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관리는 오차 액수를 따져 처벌을 받거나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效律에서도 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馬牛·芻藁의 수량 파악에 착오가 생긴 경우,<sup>19)</sup> 馬牛에 표식을 잘못했을 경우<sup>20)</sup> 등에 대한 조문이 있고, 軍馬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책임 정도에 관한 조문

藁各萬石一積，咸陽二萬一積，其出入，增積及效如禾。”；同書「秦律十八種」倉律，p.27，“禾、芻藁積索(索)出日，上贏不備縣廷。出之未索(索)而已備者，言縣廷，廷令長吏雜封其廩，與出之，輒上數廷；其少，欲一縣之，可毆(也)。廩才(在)都邑，當□□□□□□者與雜出之。”

17)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倉律，p.31，“駕傳馬，一食禾，其顧來有(又)一食禾，皆八馬公。其數駕，毋過日一食。駕縣馬勞，有(又)益<壹>禾之。”

18)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傳食律，p.60，“不更以下到謀人，糲米一斗，醬半升，采(菜)羹，芻藁各半石。●宦奄如不更。”

19) 『睡虎地秦簡』「效律」，p.76，“計校相繆(繆)毆(也)，自二百廿錢以下，誅官畜夫；過二百廿錢以到二千二百錢，貲一盾<sub>56</sub>；過二千二百錢以上，貲一甲。人戶、馬牛一，貲一盾；自二以上，貲一甲<sub>57</sub>。”；同書「效律」，p.76，“計脫實及出實多于律程，及不當而出之，直(值)其賈(價)，不盈廿二錢，除；廿<sub>58</sub>二錢以到六百六十錢，貲官畜夫一盾；過六百六十錢以上，貲官畜夫一甲，而復<sub>59</sub>責其出毆(也)。人戶、馬牛一以上爲大誤。誤自重也，減罪一等<sub>60</sub>。”

20) 『睡虎地秦簡』「效律」，p.74，“馬牛誤職(識)耳，及物之不能相易者，貲官畜夫一盾<sub>44</sub>。”

들이 그러한 경우이다.<sup>21)</sup> 效律이 회계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말의 수량 파악과 필요한 일차적인 조사에 관련하고 있는 것이다.

요역 동원에 관한 법률인 徭律에도 馬牛 사육 시설의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馬牛가 언급된다.<sup>22)</sup> 睡虎地 秦律의 徭律은 하나의 긴 조문만이 남아있는데 그 서두에 징발 업무 수행의 기본 규정을 서술하고, 중반부부터는 馬牛 사육 시설의 수리와 관련한 여러 사항을 다루고 있다. 民을 동원하여 馬牛의 사육 시설을 축조하거나 보수함에 있어, 그 보수상황을 1년까지 검사하여 훼손되었을 경우 다시 요역을 징발하여 축조하되 요역 일수로 인정하지 않고, 훼손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하는 등 馬牛 사육 시설에 대한 책임 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육 시설을 보수하는 계절 및 대상 등이 律文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분량만으로 보면 徭律이 아니라 馬牛와 관련된 律文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司空律은 각종 토목공사를 관장하는 司空의 직무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공사에 사용되는 도구의 사용이나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기서는 長官과 吏가 관청의 수레를 끄는 馬牛의 사료를 수령할 때 官의 牛車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sup>23)</sup> 月마다 수령하는 馬牛의 사료는 그 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관부의 수레를 쓰도록 했던 것인데, 관청의 馬牛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를 확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1) 『睡虎地秦簡』「效律」, p.76, “司馬令史掾苑計, 計有劾, 司馬令史坐之, 如令史坐官計劾然<sub>55</sub>.”

22)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徭律, p.47, “…… ●縣葆禁苑、公馬牛苑, 興徒以斬(塹)垣離(籬)散及補繕之, 輒以效苑吏, 苑吏循之. 未卒歲或壞<sub>117</sub>阨(決), 令縣復興徒爲之, 而勿計爲繇(徭). 卒歲而或阨(決)壞, 過三堵以上, 縣葆者補繕之; 三堵以下, 及雖<sub>118</sub>未盈卒歲而或盜阨(決)道出入, 令苑輒自補繕之. 縣所葆禁苑之傳山、遠山, 其土惡不能雨, 夏有<sub>119</sub>壞者, 勿稍補繕, 至秋毋(無)雨時而以繇(徭)爲之. 其近田恐獸及馬牛出食稼者, 縣嗇夫材與有田其旁<sub>120</sub>者, 無貴賤, 以田少多出人, 以垣繕之, 不得爲繇(徭). ……”

23)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司空, p.50, “官長及吏以公車牛稟其月食及公牛乘馬之稟, 可毆(也). 官有金錢者自爲買脂、膠, 毋(無)金錢者乃月爲言脂、膠, 期<sub>128</sub>踐. 爲鐵攻(工), 以攻公大車.”

그 밖에 內史雜律은 수도를 다스리는 內史의 직무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內史 관리들의 임용 조건에 대한 규정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馬牛를 관장하는 苑囿夫와 관련한 律文이나,<sup>24)</sup> 芻를 저장한 창고와 관련한 律文이 있다.<sup>25)</sup> 苑囿夫가 부재할 경우에 縣에서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안배하고, 그 업무 처리를 廐律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6)</sup>

이처럼 睡虎地秦簡만을 보더라도 생각 이상으로 말과 관련한 법률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말에 관련한 규정이 법률 전반에 걸쳐져 있다는 사실은, 국가에서 말이라는 물자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알게 해준다. 또한 상당히 다양한 律文 곳곳에서 말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각 律名은 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말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嶽麓秦簡에서도<sup>27)</sup> 말의 관리, 요역, 문서행정, 매매 등과 관련한 律文이 다량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睡虎地 秦律과 마찬가지로 각 율문에 말과 관련된 조문이 매우 높은 비중으로 출현하며, 특히 말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律名에서도 말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보인다. 논지 전개상

24)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內史雜, p.63, “侯(候)、司寇及群下吏毋敢爲官府佐、史及禁苑憲盜.”

25)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內史雜, p.64, “有實官高其垣牆. 它垣屬焉者, 獨高其置芻廄及倉茅蓋者. 令人勿紆(近)舍. 非其官人毆(也), 毋敢舍焉<sup>195</sup>. 善宿衛, 閉門輒靡其旁火, 慎守唯敬(敬). 有不從令而亡、有敗、失火, 官吏有重罪, 大畜夫、丞任之.”

26) 가령 司空律에는 官에서 노역하는 인력과 그 임금계산 및 의복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채무자가 官에서 노역을 해야 할 때, 노비나 馬牛가 있으면 이것으로써 변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馬牛의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국가가 노비와 마찬가지로 馬牛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27) 현재 『嶽麓書院藏秦簡』은 제4권까지 公刊되었으며, 제5권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서 간행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선 본고의 논지를 위해 2017년 武漢大學에서 열린 『嶽麓書院藏秦簡』 제5권 검토회에 제출된 간문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한다.

睡虎地 秦律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

嶽麓秦簡 田律은 전체조문의 절반이 芻稟에 관한 내용이다. 睡虎地 秦律의 田律에서도 馬牛와 관련된 조문이 전체 조문의 반 이상에 이른 것과 유사하다. 芻稟의 납입 및 보관이 주된 내용이고,<sup>28)</sup> 그밖에 吏가 휴가를 받아 말을 타고 귀가하다가 다른 縣을 지나갈 때 芻稟과 기타 곡물을 빌리거나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sup>29)</sup> 田租의 기본적인 징수대상인 禾稼와 함께 말의 먹이인 芻稟과 관련된 내용이 田律의 조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徭律에서는 睡虎地秦簡에서처럼 요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睡虎地 秦律에서의 내용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즉 養馬를 담당하는 것은 관부의 인력이고, 일반 民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0)</sup> 이는 民을 동원하여 말을 사육하는 시설을 수리하거나 축조하도록 했던 睡虎地 秦律을 참조하면, 사육 시설의 경우는 일반 民의 요역을 통해 축조하되 말의 사육은 전문가인 관리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요역과 관련해서도 말의 사육이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金布律은 화폐와 재화에 관한 법률이다. 물건을 매매하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金布律의 전체조문 7개 중 말과 관련된 조문은 3개나 있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은 芻稟의 징수,<sup>31)</sup> 말의 매매,<sup>32)</sup> 말의 용도 규제와<sup>33)</sup> 관련되어 있다. 그중

28) 『嶽麓書院藏秦簡』 4(陳松長 主編, 『嶽麓書院藏秦簡(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5. 이하 『嶽麓秦簡』으로 略稱), p.103, “●田律曰: 租禾稼. 頃芻稟, 盡一歲不齎(畢)入及諸賞它縣官者, 書到其縣官, 盈卅日弗入及有逋不<sup>106/1278</sup>入者, 賞其人及官嗇夫、吏主者各一甲, 丞、令、令史各一盾. 逋其入而死、亡有臯毋(無)後不可得者, 有(又)令官嗇<sup>107/1282</sup>夫、吏代償.<sup>108/1283</sup>”; 同書, p.125, “●田律曰: 毋令租者自收入租, 入租賞者不給, 令它官吏助之. 不如令, 官嗇夫、吏賞各二甲, 丞、令、令史不得<sup>173/1224</sup>及入租賞不給, 不令它官吏助之, 賞各一甲.<sup>174/145</sup>”

29) 『嶽麓秦簡』 4, pp.104-105, “●田律曰: 吏歸休, 有縣官吏乘馬及縣官乘馬過縣, 欲賞芻稟、禾、粟、米及買菽者, 縣以朔日<sup>111/1284</sup>平賈(價)受錢, 先爲錢及券, 鈔以令、丞印封, 令、令史、賦主各挾一辨, 月盡發鈔令、丞前, 以中辨券案<sup>112/1285</sup>雖(讎)錢, 錢輒輸少內, 皆相與磨(磨)除封印, 中辨臧(藏)縣廷.<sup>113/1281</sup>”

30) 『嶽麓秦簡』 4, p.119, “●繇(徭)律曰: …… 毋令士五(伍)爲吏養、養馬; ……<sup>154/1374</sup>”

31) 『嶽麓秦簡』 4, p.107, “●金布律曰: 出戶賦者, 自泰庶長以下, 十月戶出芻一石十五

에는 體高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나이가 어린 말에게 수레를 끌거나 짐을 나르는 것, 말을 가는 행위 등의 잡무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 金布律이라는 재화 관련 律令에서 관부의 말뿐만 아니라 민간의 말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賊律은 주로 고의성을 지닌,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에 관한 법률규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馬牛와 관련된 조문이 있다. 다만 效律의 규정이 회계 검토 시의 오류에 관한 내용이라면, 嶽麓秦簡의 賊律에서는 券書を 작성할 때의 오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律名을 알 수 없는 조문 중에서도 말과 관련이 있는 조문은 5개나 나온다. 그 내용으로는 馬牛로 노역형을 변제하는 경우,<sup>34)</sup> 말을 거래할 때 만들어야 하는 문서,<sup>35)</sup> 泰廐 소속의 城旦이 도망쳤을 경우<sup>36)</sup> 등이 있다.

斤; 五月戶出十六錢, 其欲出布者, 許<sub>118/1287</sub>之. 十月戶賦, 以十二月朔日入之, 五月戶賦, 以六月望日入之, 歲輸泰守. 十月戶賦不入芻而入錢<sub>119/1230</sub>者, 入十六錢. 吏先爲?印, 斂, 毋令典、老挾戶賦錢.<sub>120/1280</sub>”

32) 『嶽麓秦簡』 4, pp.133-135, “• 金布律曰: 黔首賣馬牛勿獻(讞)廷, 縣官其買毆(也), 與和市若室, 勿敢強. 買及賣馬牛、奴婢它鄉、它縣, 吏<sub>198/1415</sub>爲(?)敢傳書及致以歸及(?)免(?), 弗爲書, 官嗇夫吏主者, 貲各二甲, 丞、令、令史弗得, 貲各一甲. 其有事關外, 以私馬<sub>199/1428</sub>牛羊行而欲行賣之及取傳賣它縣, 縣皆爲傳, 而欲徙賣它縣者, 發其傳爲質. 黔首賣奴婢(婢)、<sub>200/1300</sub>馬牛及買者, 各出廿二錢以質市亭. 皇帝其買奴婢(婢)、馬, 以縣官馬牛羊質黔首馬牛羊及買, 以爲義<sub>201/1301</sub>者, 以平賈(價)買之, 輒予其主錢. 而令虛質、毋出錢、過旬不質, 貲吏主者一甲, 而以不質律論. 黔首自<sub>202/1351</sub>告, 吏弗爲質, 除. 黔首其爲大隲取義, 亦先以平賈(價)直之. 質奴婢、馬、牛者, 各質其鄉, 鄉遠都市, 欲徙<sub>203/0990</sub>”

33) 『嶽麓秦簡』 4, p.110, “• 金布律曰: 禁毋敢以牡馬、牝馬高五尺五寸以上, 而齒未盈至四以下, 服輦車及犂(墾)田、爲人<sub>127/1229</sub>就(僦)載, 及禁賈人毋得以牡馬、牝馬高五尺五寸以上者載以賈市及爲人就(僦)載, 犯令者, 皆<sub>128/1279</sub>”

34) 『嶽麓秦簡』 4, p.156, “黔首有貲贖責(債)而有一奴若一婢, 有一馬若一牛, 而欲居者, 許之.<sub>267/128</sub>”

35) 『嶽麓秦簡』 4, pp.135-136, “老爲占者皆遷(遷)之. 舍室爲里人盜賣馬、牛、羊、人, 典、老見其盜及雖弗見或告盜, 爲占質, 黔爲<sub>204/1226</sub>城旦, 弗見及莫告盜, 贖耐, 其伍、同居及一典, 弗坐. 賣奴婢(婢)、馬、牛者, 皆以帛書質, 不從令者,<sub>205/142</sub>貲一甲. 賣半馬半牛者, 毋質諸鄉.<sub>206/1263</sub>”

36) 『嶽麓秦簡』 4, p.55, “泰廐城旦不將司從馬, 亡而得者, 斬其左止, 復爲城旦. 後復亡,



또한 嶽麓秦簡에는 律 외에도 令에 해당하는 조문이 다수 존재한다.<sup>37)</sup> 令에는 관리의 임용 조건, 도적 발생 시의 대처, 요역 징발 후 집안에 喪事가 생겼을 때의 규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내용의 약 40여 개의 令文 중에 말과 관련한 것은 15개에 이른다. 모든 令文을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芻稟와 징수,<sup>38)</sup> 관부의 말을 훔친 경우의 처벌,<sup>39)</sup>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규정<sup>40)</sup> 등의 내용이 있다. 당시에는 律에 미처 규정하지 못한 각종 세부 규정을 때때로 令을 선포함으로써 보완하였다. 그런데 말과 관련된 令이 매우 많이 확인된다는 것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말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령을 확대·수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二年律令의 경우도 秦律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규정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二年律令에서 유일한 令名인 津關令이 주목된다. 津關에서의 물자 출입을 통제하는 법령이지만, 여기에는 총 20개의 말과 관련한 조문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말을 關外로 반출하려면 말의 수량과 정보를 소상히 적고, 관소의 검사를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말과

勿斬，如它城旦然.<sup>049/1997</sup>”

37) ‘令曰’ 이외에 ‘○○言’의 형식도 모두 令으로 취급하였다. 令文 말미에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言’의 令文도 숫자가 나온다.

38) 『嶽麓秦簡』 4, pp.223-224, “芻稟積五歲以上者以貸，黔首欲貸者，到收芻稟時而責(債)之，黔首莫欲貸，貸而弗能索(索)者，以<sup>386/0518</sup>黔首入租貸芻[稟]□□□□賣，毋(無)衡石斗甬(桶)以縣米，□□者，□□□□□<sup>387/0610</sup>石(?)斗甬，里量(?)以□□□□爲□□□縣官衡石斗甬(桶)□縣(?)□□□□□□及芻(?)□<sup>388/0667</sup>斗甬(桶)焉，毋奪黔首時，內史布當用者。<sup>389/0664</sup>廷內史郡二千[石]官共令 • 第庚 • 今壬<sup>390/1131</sup>”

39) 『嶽麓秦簡』 5(未刊), “•御史言: 予徒隸園有令, 今或盜牧馬牛羊徒隸園中, 盡蹂其稼(稼). 請: 自今以來盜牧馬牛羊<sup>0962</sup>徒隸園中, 壹以上皆貲二甲, 吏廢官, 宦者出宦而沒其私馬牛羊縣官. 有能捕誦告犯此令<sup>2108</sup>□□□木它稼(稼)及食之, 皆令償之, 或入盜牧者與同灋. •請: 諸盜牧馬<sup>1120+C4-2-1-7</sup>牛羊縣官園者皆用此令. •廿<sup>0930</sup>”

40) 『嶽麓秦簡』 4, pp.198-199, “內史郡二千石官共令第<sup>312/0465</sup>縣官毋得過驂乘, 所過縣以律食馬及禾之. 御史言, 令覆獄乘恒馬者, 日行八十里. 請, 許. 如<sup>313/0698</sup>有所留避, 不從令, 貲二甲.<sup>314/0641</sup>”

관련된 법률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날 뿐 아니라 廐苑律 이외의 전반적인 律令 속에서도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말은 ‘馬牛’나 ‘牛馬’ 등, 소와 並稱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방법이 더 세세하게 규정되고 민간소유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정도가 심한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다.

<표 1> 秦漢律令에 언급되는 말 관련 규정 분포

	睡虎地秦簡			嶽麓秦簡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律令 수량		비율	律令 수량		비율	律令 수량		비율
	전체	말 관련		전체	말 관련		전체	말 관련	
田律	6	4	66%	6	3	50%	12	6	50%
倉律	26	4	15%						
徭律	1	1	100%	7	1	14%			
司空律	13	2	15%	2	1				
效律	30	8	27%						
傳食律	3	1	33%				4	2	50%
戶律							22	3	14%
置吏律							10	1	10%
內史雜律	11	3	27%	3	1	33%			
金布律	15	1	7%	7	3	43%	11	4	36%
賊律				1	1	100%	41	3	7%
盜律							18	1	5%
行書律							8	1	13%
令				40	15	38%			
津關令							20	13	66%
불명					5				

## 2. 말의 관리 체계

秦漢시대 율령은 도적 및 살상 관련 치안 법률, 인민을 파악하기 위한 호적의 작성, 그리고 그에 근거한 토지의 분배 및 세금의 징수 등 국가운영에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응당 사람이 그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말과 관련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말이 국가 운영에 빼놓을 수 없는 불가결한 요소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 내용이 율령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은 물론, 그 운영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율령에 散見되어 있는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국가의 馬政 체계 전체를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1절의 분석을 토대로 말과 관련한 조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말의 사육과 같은 직접적인 부분과 시설 보수나 芻藁의 징수 등과 같은 간접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세분화하면 ① 사육 ② 보호 ③ 개체수의 파악 ④ 징발 ⑤ 시설 관리 ⑥ 매매 및 반출 ⑦ 사료의 징수와 저장 등의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분류에 기초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각각 그 내용을 검토하고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秦漢시대 馬政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 ① 사육

이 항목은 養馬와 관련한 규정으로 분류한 것이다. 馬政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말을 잘 길러내는 것이다. 앞서 추출한 馬政 律文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사육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 항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매우 사소한 부분까지 律令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률적인 사육 방법을 따라야 했다는 것이다. 말에게 사료를 지급할 때에도 동일한 양의 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말의 나이와 업무, 그리고 계절에 따라 사료의 양과 종류, 배합 비율 등을 각각 다르게 하였다.<sup>41)</sup>

지속적인 심사를 통해 말의 건강이나 능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이 항목에 포함된다. 만약 말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官吏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다.<sup>42)</sup> 馬牛가 죽었을 때에는 縣에 알려 검사를 받은 후 힘줄·가

41) 『二年律令』「金布律」, p.251, “馬牛當食縣官者, 慘以上牛日芻二鈞八斤; 馬日二鈞□(八)斤, 食一石十六斤, 芻藁半. 乘輿馬芻二藁一. 犝、玄(驢)食之<sup>421</sup>各半其馬牛食. 僕牛日芻三鈞六斤, 犢半之. 以冬十一月稟之, 盡三月止. 其有縣官事不得芻牧者, 夏稟之如冬, <sup>422</sup>各半之.”<sup>423)</sup>

42) 『睡虎地秦簡』「秦律雜抄」, p.86, “傷乘輿馬, 夫(決)革一寸, 貲一盾; 二寸, 貲二盾;

죽·뿔을 관청에 납입한다는 규정도 여기에 해당한다.<sup>43)</sup> 이 항목에 속해 있는 律文을 통해 秦漢시대의 말 사료 지급에서부터 관리, 사후 처리 문제까지 律令으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료의 수령에 대한 규정은 田律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44)</sup> 후술하겠지만 말의 사료인 芻藁의 징수가 대부분 金布律에 속해 있는 것처럼 芻藁의 지급도 金布律에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官吏들은 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金布律을, 지급을 받는 경우 田律을 참고했을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말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달랐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어떠한 처리를 할 때에는 다중의 부서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 ② 보호

말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상황에서의 처벌 규정도 다수 보인다. 예를 들어 馬牛가 지나가는 곳에 함정을 파는 등 馬牛를 해칠만한 기기를 설치하면 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sup>45)</sup> 법의 규정은 범법자를 엄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국가가 금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

過二寸，貲一甲。●課馱駟，卒歲<sub>27</sub>六匹以下到一匹，貲一盾。●志馬舍乘車馬後，毋(勿)敢炊飭，犯令，貲一盾。已馳馬不去車<sub>28</sub>，貲一盾。”

43)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廐苑律，p.24，“將牧公馬牛，馬【牛】死者，亟謁死所縣，縣亟診而入之，其入之其弗亟而令敗者，令以其未敗直(值)賞(償)之。其小隸臣<sub>16</sub>疾死者，告其□□之；其非疾死者，以其診書告官論之。其大廐、中廐、官廐馬牛毆(也)，以其筋、革、角及其賈(價)<sub>17</sub>錢效，其人詣其官。其乘服公馬牛亡馬者而死縣，縣診而雜買(賣)其肉，即入其筋、革、角，及索(索)入其賈(價)錢。錢<sub>18</sub>少律者，令其人備之而告官，官告馬牛縣出之。今課縣、都官公服牛各一課，卒歲，十牛以上而三分一死；不【盈】<sub>19</sub>十牛以下，及受服牛者卒歲死牛三以上，吏主者、徒食牛者及令、丞皆有罪。內史課縣，大(太)倉課都官及受服者。”

44)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田律，p.22，“乘馬服牛稟，過二月弗稟、弗致者，皆止，勿稟、致。稟大田而毋(無)恒籍者，以其致到日稟之，勿深致。”

45) 『二年律令』『田律』，p.192，“諸馬牛到所，皆毋敢穿窬及[置它機]，穿窬及置它機能害人、馬牛者，雖未有殺傷也，耐爲隸臣妾。殺傷馬牛，與盜同法。殺人<sub>251</sub>棄市。傷人，完爲城旦舂<sub>252</sub>”

목적도 있다. 秦漢律에서 馬牛를 살상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문이 다수 나오는 것은 馬牛를 해치지 말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조문들은 馬牛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말 사육장 근처에 개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든지, 어린 말을 잡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규정들도 모두 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해당한다. 다른 가축과는 달리 馬牛 특히 馬의 보호는 법률로써 보장되고 있었다. 보호의 대상에는 국가소유를 비롯하여 민간의 것도 해당된다.

• 金布律曰: 牡馬・牝馬 중 높이 5尺5寸 이상으로 치아가 없거나 (1세 미만) 4세 이하인 것들로써 수레를 끌거나 밭을 갈거나 사람을 위해 [물건을] 싣게끔 감히 하지 말고, 상인은 牡馬・牝馬 중 높이 5尺5寸 이상인 것들로써 판매를 위해 물건을 싣거나 사람을 위해 물건을 싣게 해서는 안 된다. 숨을 범한 경우 모두 ……<sup>46)</sup>

나이와 키가 일정기준에 부합하면 민간소유의 말일지라도 그 용도에 제한이 있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몸집이 좋은 말을 보호하는 것인데, 개인의 물자를 국가에서 통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돌밭 상황에서 징발 혹은 매입을 통한 말을 확보를 그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③ 개체 수의 파악

이 항목은 말의 개체수와 각개 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규정들로 분류한 것이다.

46) 『嶽麓秦簡』 5, “• 金布律曰: 禁毋敢以牡馬、牝馬高五尺五寸以上, 而齒未盈至四以下, 服輦車及犴(墾)田、爲人【簡127正】 1229 就(僦)載, 及禁賈人毋得以牡馬、牝馬高五尺五寸以上者載以賈市及爲人就(僦)載, 犯令者, 皆【簡128正】 1279”

회계 내용에 대한 대조 검토의 결과 착오가 발견되었는데, ……  
人戶의 수를 계산하면서 1戶의 착오가 있거나 馬牛의 수를 계산하  
면서 한 마리의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1盾의 벌금을 부과하고,  
人戶 2戶이상, 馬牛 2頭 이상을 잘못 계산하였다면, 1甲의 벌금을  
부과한다.<sup>47)</sup>

위의 律文은 관부에서 회계 검사를 할 때 馬牛의 수를 잘못 파악한 것이  
발각되면 官吏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軍馬를 사육하는 苑囿에서도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sup>48)</sup> 縣 등 관부에 속한 말은 정기적  
인 上計 문서를 통해 국가에 보고되었던 것 같다.<sup>49)</sup>

또한 馬體에 표식을 남겼던 것도<sup>50)</sup> 이 항목의 律令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을 여타 기록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데,<sup>51)</sup> 이는 말  
의 소유지를 명확하게 하여 관리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오랜 방법이  
었기 때문이다.<sup>52)</sup> 말의 수와 각개 말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 규정에 맞춰 문

47) 『睡虎地秦簡』『效律』, p.76, “計校相繆(繆)毆(也), 自二百廿錢以下, 誅官畜夫; 過二百廿錢以到二千二百錢, 貲一盾<sup>56)</sup>; 過二千二百錢以上, 貲一甲. 人戶、馬牛一, 貲一盾; 自二以上, 貲一甲.<sup>57)</sup>”

48) 『睡虎地秦簡』『效律』, p.76, “司馬令史掾苑計, 計有劾, 司馬令史坐之, 如令史坐官計劾然.<sup>55)</sup>”

49) 참고로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말은 그 상황을 전하는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戶籍을 작성할 때 재산을 기재하였으므로 적어도 국가에서 민간이 소유한 말의 숫자를 파악할 수는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50) 『睡虎地秦簡』『效律』, p.74, “馬牛誤職(識)耳, 及物之不能相易者, 貲官畜夫一盾.<sup>44)</sup>”

51) 『睡虎地秦簡』『封珍式』盜馬, p.151, “爰書: 市南街亭求盜才(在)某里曰甲縛詣男子丙, 及馬一匹, 騅牝右剽; 緹覆(複)衣<sup>21)</sup>, 帛里莽綠領袂(袖), 及履, 告曰: 「丙盜此馬、衣, 今日見亭旁, 而捕來詣<sup>22)</sup>」”; 『懸泉置漢簡』(胡平生·張德芳 編撰, 『敦煌懸泉漢簡釋粹』,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이하 『懸泉置漢簡』으로 略稱) V1610 ②:10-20 「傳馬名籍」, pp.81-82.

52) 표식의 방법은 낙인이나 칼로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莊子』에 의하면, 伯樂이라는 자는 秦穆王 때의 相馬 전문가이자 馬醫였다고 하는데, 그는 말을 순화하기 위해 고삐를 장착시키고 뜨겁게 달군 쇠나 도장을 말에 찍어 표식을 남겼다고 한다(『莊子』([清]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莊子集釋』, 新編諸子集成, 北京: 中華

서화되어 중앙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만약 국가의 馬牛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官吏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④ 징발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말의 징발과 관련된 규정도 있다. 말은 군수물자의 일종으로 전쟁에 필수적인 물자였다. 따라서 말의 확보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였고, 이에 관한 법률도 지정했던 것이다. 軍馬의 조건이나 관리 상태에 대한 규정으로 내용을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53)</sup> 驀馬는 키가<sup>54)</sup> 5尺8寸(약 1.33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官吏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우선적으로 驀馬를 징발하고,<sup>55)</sup> 말이 갖추어지면 이에 중군자를 선발한다. 驀馬가 軍에 도착한 후 검사를 진행하여 말의 신체나 훈련 상태가 최하등이면 官吏들을 처벌한다. 軍馬와 관련해서도 상태에 따라 官吏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書局, 2006) 卷4中「外篇」馬蹄, p.330, “及至伯樂, 曰:「我善治馬。」燒之, 剔之, 刻之, 雒之, 連之以羈羈, 編之以阜棧, 馬之死者十二三矣.”).

53) 『睡虎地秦簡』『秦律雜抄』, p.81. “●驀馬五尺八寸以上, 不勝任, 奔摯(繫)不如令, 縣司馬貲二甲, 令·丞各一甲. 先賦驀馬, 馬備, 乃糶從軍者, 到軍課之, 馬殿, 令·丞二甲; 司馬貲二甲, 法(廢)”

54) 말의 크기는 體高(혹은 首高)와 身高로 구분할 수 있다. 體高의 측정 기준은 앞발이 닿는 지면에서 머리까지의 높이이고, 身高의 기준은 말의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이다. 秦始皇兵馬俑 2號坑에서 출토된 兵馬의 경우 體高가 1.72m, 身高가 2.03m인데 비해, 위의 驀馬 기준은 體高가 5尺8寸(1.33m)이므로 상당히 작다. 이는 타고 달릴 수 있는 말의 體高의 최저 기준을 5尺8寸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55) 驀馬가 軍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는 “賦驀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律文의 정리자는 ‘賦’字에 착목하여 민간에서 징발하는 것으로 보았다(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睡虎地秦墓竹簡』, pp.81-82). 반면 관부의 말에 한한 것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는데, 훈련 상태를 점검하여 하등이면 官吏를 처벌하는 등, 정황상 驀馬는 관부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官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戴世君, 『雲夢秦律新解(六則)』, 『江漢考古』 2008-4).

## ⑤ 시설 관리

이 항목은 말을 기르고 관리하는 인원과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는 말을 기르는 시설인 廐苑의 업무를 縣의 인력으로 보충하여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다.<sup>56)</sup> 苑과 縣이 서로 연계하여 苑騫夫가 부재할 경우 즉각 업무를 대신 처리할 사람을 안배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부의 말을 기르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 養馬場에서 노역하는 자가 도망한 경우의 처벌, 말을 사육하는 시설의 축조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이 여기에 속한다.

泰廐 소속의 城旦이 말을 사육하지 않고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그 왼쪽 정강이를 斬하고 다시 城旦으로 [복역한다]. 뒤에 또 도망하면 [더는] 斬하지는 않고, 다른 城旦[의 경우]처럼 한다.<sup>57)</sup>

이는 중앙 직속에 해당하는 泰廐에 소속된 徒隸가 말을 사육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의 처벌 규정이다. 그 처벌은 왼쪽 다리를 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城旦의 신분이 亡罪를 저질렀을 경우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黥刑을 하는 것과<sup>58)</sup> 비교하면 처벌 강도가 더 세다. 이미 黥을 받은 城旦이 다시 黥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劓刑, 그 다음 단계가 斬左止이므로<sup>59)</sup>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랐다. 泰廐 城旦은 여타 城旦과는 달리 말 사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노비이므로, 이 조문은 전문노동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56)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內史雜, p.62, “除佐必當壯以上, 毋除士五(伍)新傳. 苑騫夫不存, 縣爲置守, 如廐律.”

57) 『嶽麓秦簡』4, p.55, “泰廐城旦不將司從馬, 亡而得者, 斬其左止, 復爲城旦. 後復亡, 勿斬, 如它城旦然.”<sup>049/1997</sup>

58) 『二年律令』『亡律』, p.156, “城旦舂亡, 黥, 復城旦舂. 鬼薪白粲也, 皆答百.”<sup>164</sup>

59) 『二年律令』『具律』, p.126, “有罪當黥, 故黥者劓之, 故劓者斬左止(趾), 斬左止(趾)者斬右止(趾), 斬右止(趾)者府(腐)之. 女子當磔若要(腰)斬者棄市. 當斬爲城旦者黥爲舂, 當贖斬者贖黥,<sup>88</sup> 當耐者贖耐.”<sup>89</sup>



## ⑥ 매매 및 반출

이 항목은 말의 매매에 관한 규정으로 분류한 것이다. 말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의 절차, 關外 반출의 금지 등의 규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津關을 출입할 때 말의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해 엄정하게 검열하거나<sup>60)</sup> 멋대로 馬牛를 市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sup>61)</sup> 말을 매매할 때 관부에서 가격평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sup>62)</sup> 가격을 조절하거나 말을 이동시킬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통행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데에서 국가에서 말의 거래를 통제하고 파악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縣官과 민간의 말 거래 상황도 볼 수 있다. 金布律에서 “黔首가 馬牛를 팔 때 廷에 바치지 말고, 縣官이 그것을 산다면 市 혹은 室에서 교역하고, 감히 강제로 하지 말라”<sup>63)</sup>고 명시하고 있다. 민간의 말을 구입한다면 공식거래 장소인 市에서 평균가격을 주고 구입해야 했다. 수탈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에 의한 교역을 통해 민간의 말을 공급받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기본적 필요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

60) 『二年律令』『津關令』, p.312, “□、御史請諸出入津關者, 皆入傳, 書郡、縣、里、年、長、物色、疵瑕見外者及馬馱(識)物關舍人占者, 津關謹閱, 出入之. 縣官馬勿馱(識)物<sup>498</sup>”

61) 『嶽麓秦簡』 5, “□□敢令其奴婢、私屬、免婢市販馬牛犢爲質, 不從令者, 黥奴婢、私屬、免婢爲城旦舂, 黥其[離(顏)顏] □<sup>1795</sup>禁市販. • 廷卒甲廿七<sup>1699-1</sup>”

62) 『嶽麓秦簡』 5, “老爲占者皆遷(遷)之. 舍室爲里人盜賣馬、牛、羊、人、典、老見其盜及雖弗見或告盜, 爲占質, 黥爲<sup>204/1226</sup>城旦, 弗見及莫告盜, 贖耐, 其伍、同居及一典, 弗坐. 賣奴婢(婢)、馬、牛者, 皆以帛書質, 不從令者,<sup>205/142</sup> 貲一甲. 賣半馬半牛者, 毋質諸鄉.<sup>206/1263</sup>”

63) 『嶽麓秦簡』 4, pp.133-135, “• 金布律曰: 黔首賣馬牛勿馱(識)廷, 縣官其買馱(也), 與和市若室, 勿敢強. 買及賣馬牛、奴婢它鄉、它縣, 吏<sup>198/1415</sup>爲(?)敢傳書及致以歸及(?)免(?), 弗爲書, 官嗇夫吏主者, 貲各二甲, 丞、令、令史弗得, 貲各一甲. 其有事關外, 以私馬<sup>199/1428</sup>牛羊行而欲行賣之及取傳賣它縣, 縣皆爲傳, 而欲徙賣它縣者, 發其傳爲質. 黔首賣奴婢(婢)、<sup>200/1300</sup>馬牛及買者, 各出廿二錢以質市亭. 皇帝其買奴婢(婢)、馬, 以縣官馬牛羊質黔首馬牛羊及買, 以爲義<sup>201/1301</sup>者, 以平賈(價)買之, 輒予其主錢. 而令虛質、毋出錢、過旬不質, 貲吏主者一甲, 而以不質律論. 黔首自<sup>202/1351</sup>告, 吏弗爲質, 除. 黔首其爲大賈取義, 亦先以平賈(價)直之. 質奴婢、馬、牛者, 各質其鄉, 鄉遠都市, 欲徙<sup>203/0990</sup>”(밑줄은 필자강조)

우 민간의 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역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제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 ⑦ 사료의 징수와 저장

이 항목은 馬牛의 사료로 쓰이는 芻藁의 징수 규정과 저장 방법에 관한 것이다. 芻藁의 징수 대상, 기준, 비율 및 징수된 芻藁를 관부에서 보관할 때 지켜야 할 세부 사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 田律曰: 禾稼・頃芻藁의 租를 [낼 때] 1년이 다 되어도 납입을 전부 마치지 못한 경우, 다른 縣官에 빌렸는데 그 縣官에 문서를 보내 30일이 지나도 빌린 것을 갚지 못한 경우, 회피하여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자 및 官騫夫・吏主者에게 각각 1甲을, 丞・令・令史는 각각 1盾씩을 벌금으로(貲) 내게 한다. 납입을 회피하고 사망하였는데 후계자가 없으면 또한 官騫夫・吏로 하여금 대신 배상하게 한다.<sup>64)</sup>

이 규정에 따르면 芻藁 납입 시 기간을 넘기거나 체납자가 사망 및 도망하여 체납된 芻藁를 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징수를 담당한 官吏들에게 책임을 물어 대신 배상하도록 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芻藁 수입에 손실이 없게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芻藁를 미납한 경우 부과한 벌금의 액수를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벌금액은 秦代에는 貲 1甲이고, 漢代에는 金 4兩이다. 貲 1甲과 金 4兩은 각각 1344錢과 2304錢으로,<sup>65)</sup> 본래 납부해야 했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의 벌금이다. 二年律令의 盜律을 보면 贓物賈에 따른 처벌 규정이 22錢

64) 『嶽麓秦簡』 4, p.103, “• 田律曰: 租禾稼、頃芻藁, 盡一歲不齎(畢)入及諸責它縣官者, 書到其縣官, 盈卅日弗入及有逋不<sub>106/1278</sub>入者, 貲其人及官騫夫、吏主者各一甲, 丞、令、令史各一盾. 逋其入而死、亡有臯母(無)後不可得者, 有(又)令官騫<sub>107/1282</sub>夫、吏代償.<sub>108/1283</sub>”

65) 于振波, 「秦律中的甲盾比價及相關問題」, 『史學集刊』, 2010-5期, pp.37-38.

에서 110錢에 해당하는 벌금이 金 4兩으로 芻藁稅 미납의 벌금과 동일하다.<sup>66)</sup>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盜”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芻藁라는 자원이 갖는 유의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秦漢시대 馬政 체계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養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철저히 법률에 의해 강제되었다. 廐苑律이라는 畜牧에 관련한 법률조문의 출현 자체가, 養馬에 일률적인 방법을 적용시키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말에게 먹이를 주는 데에만 해도 종류와 중량까지 일일이 법률로 지정하고, 그 사료의 관리·말의 훈련 및 용도에 따른 말의 자리 배치마저 규정하며, 또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면 관리자를 엄벌함으로써, 국가에서 말의 사육과 관리 전반에 개입하여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

둘째, 官吏에게 철저히 책임을 지웠다. 말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官吏의 ‘책임제도’로서 준수되었다. 吏는 규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말의 관리 상태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예컨대 말에게 상처가 난 경우뿐 아니라<sup>67)</sup> 정기적인 考劾으로 말을 평가하여 느리게 걷거나 몸이 야위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담당자는 어김없이 처벌을 받아야 했다.<sup>68)</sup> 법령에 규정된 사육 방법을 준수했더라도 말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관리자가 벌금을 내는 형식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 담당자의 상급 관리자에게도 연대 책임이 돌아갔다. 이러한 ‘책임 관리’ 제도는 업무 태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서 시행되었을 것이지

66) 『二年律令』「盜律」, p.112, “盜賊(贓)直(值)過六百六十錢, 黥爲城旦舂. 六百六十到二百廿錢, 完爲城旦舂. 不盈二百廿到百一十錢, 耐爲隸臣妾. 不<sub>55</sub>盈百一十到廿二錢, 罰金四兩. 不盈廿二錢到一錢, 罰金一兩.<sup>56)</sup>”

67) 『睡虎地秦簡』「秦律雜抄」, p.86, “傷乘輿馬, 夫(決)革一寸, 貲一盾; 二寸, 貲二盾; 過二寸, 貲一甲. • 課駛驥, 卒歲<sub>27</sub>六匹以下到一匹, 貲一盾. • 志馬舍乘車馬後, 毋(勿)敢炊飭, 犯令, 貲一盾. 已馳馬不去車<sub>28</sub>, 貲一盾.”

68) 『睡虎地秦簡』「秦律雜抄」, p.86, “膚吏乘馬篤、犂(𨾏), 及不會膚期, 貲各一盾. 馬勞課殿, 貲廐具嗇夫一甲<sub>29</sub>, 令、丞、佐、史各一盾. 馬勞課殿, 貲皂嗇夫一盾<sub>30</sub>.”

만 官吏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인상을 준다. 게다가 촌촌하게 짜인 법률 규정은 오히려 융통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官吏에게 최종 책임을 떠맡게 하면서 법률의 빈틈을 보완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국가가 온전히 官吏에게 養馬부담을 전가한 셈이다.

셋째, 馬政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芻藁나 사육 시설, 관리 인원 등 필요한 각종 물자와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말이 가진 특수성, 즉 다른 가축과는 다르게 여러 방면에 효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말과 관련된 부서가 하나일 수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수많은 행정 제도가 마련되고, 이것을 담당 부서가 나누어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었다. 말과 상관한 조문들이 比廐苑律에만 속해 있지 않고, 넓은 범위에 걸쳐 포진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요컨대 특정 부서가 단독으로 말의 관리 업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종의 부서 혹은 책임자가 서로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체계였다.

넷째, 馬牛의 사육이 관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馬牛 사육에 관한 상세한 관리 규정의 성문화는 당시 관영 축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와 그 규모를 시사한다. 즉 秦代까지도 가축, 특히 馬牛의 사육은 민간이 아닌 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芻藁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각종 법규를 동원하여 철저히 민간으로부터 징수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대 중국의 주요 산업은 축산 산업을 제외하고도 관영으로 운영되었다. 관영 산업은 강력한 전제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더욱 육성·발전되었는데,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실제로 국가는 농·목축업, 광업, 鹽業, 운송업, 수공업 등 다양한 중요 산업에 걸쳐 직접적인 장악을 꾀했다. 발달한 관영 산업의 주요 노동력은 관노비나 형도, 관리 등 국가 인력이 주를 이루었다. 秦代에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무기형도가 되기 때문에 양산된 수많은 유희노동력을 국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활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 II. 말의 수요 증가와 사회적 부담

### 1. 古代 中國에서의 말의 수요 증가

前章에서 律令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대 중국에서는 말을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말의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국가의 부담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격적으로 비용을 계산하기에 앞서 고대 중국에서 말의 수요가 차츰 증가하고 있던 상황을 확인해 보자.

고대 중국에서 말은 교통, 운반, 농경, 의례 등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부터 꼬리·힘줄에 이르기까지 쓰임새가 있어 군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활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역시 말의 이용은 戰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말은 국가의 武用’이라든지<sup>69)</sup> ‘天下의 武備’<sup>70)</sup> 등과 같은 표현은 고대 중국에서 군사적인 의미가 가장 두드러졌음을 알려준다. 즉 고대 중국 사람들에게 말은 ‘武器’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고대 중국의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말이 처음 중국에 도입되었을 단계에는 騎兵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말은 승마보다 수레를 끄는 수단으로 먼저 사용되었으며,<sup>71)</sup> 권위를 드러내는 특별한 장식이나 소비사치품이었다. 당시 전쟁은 특수 신분만 참여할 수 있었고, 사냥 시에 군주의 수레를 이용한 것도 말이 부와 신분, 특권을 상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권 계층이 무덤에 말을 매장한 것은 소유물이 영원히 사용되지 않게끔 하려는 용도 외에도<sup>72)</sup> 제사를 지낼 때 말을

69) 『漢書』(이하 正史는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卷27下之上 「五行志」下之上, p.1470, “馬, 國之武用.”

70) 『漢書』 卷24上 「食貨志」上, p.1133, “車騎者, 天下武備也.”

71) 고고학 발굴을 통해 중국의 신석기시대의 유적에서 말뼈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가축이 아닌 야생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현재 고고학 상으로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수레는 河南城 安陽縣 殷墟에서 발견되었다.

희생물로 많이 사용한 것과 같이 말이 희귀품으로서 신성성과 권위를 보여주는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시기에는 말이라는 ‘물자’가 중국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그 쓰임이 주로 권위를 드러내는 장식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회의 최고 부유층에게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周가 제후국과 연합하여 商을 정벌할 때 전차 300乘을 대동하였다는<sup>73)</sup> 기록을 보면 적어도 商末周初부터는 전차가 전쟁의 주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차의 수로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만큼 전쟁에서의 비중이 커졌고, 곧 전차를 끄는 말의 확보를 필수적이게 만들었다.<sup>74)</sup> 특히 중원의 대소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춘추시대에 접어들면 전차와 말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춘추시대의 가장 큰 전쟁으로 뽑히는 城濮의 전투에서 쯔은 단독으로 700乘의 군사력을 동원하였다고 하는데<sup>75)</sup> 周가 商을 정벌할 때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이나 많다. 이와 같이 빈번한 전쟁에 따른 전차의 이용 증가로 인해 말이 ‘武器’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었으며, 국가에서 구비하고 있는 수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 차례 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는 바로 騎兵의 도입이었다. 戰國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騎兵의 역할과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戰國시대가 되면 갈수록 전쟁이 격화되어 유래 없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장기화

72) Stuart Piggott, *Wagon, Chariot and Carriage: Symbol and Status in the History of Transport*,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2.

73) 『史記』卷4『周本紀』, p.121, “居二年, 聞紂昏亂暴虐滋甚, 殺王子比干, 囚箕子. 太師疵、少師彊抱其樂器而犇周. 於是武王徧告諸侯曰: 「殷有重罪, 不可以不畢伐。」乃遵文王, 遂率戎車三百乘, 虎賁三千人, 甲士四萬五千人, 以東伐紂.”

74) 秦은 말을 잘 길러 名馬를 周王에게 헌상한 공적으로써 諸侯에 책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周가 마필의 확보가 필요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다른 제후국에서는 말의 사육 및 생산이 용이치 않았음을 시사한다(『史記』卷5『秦本紀』, p.177, “非子居犬丘, 好馬及畜, 善養息之. 犬丘人言之周孝王, 孝王召使主馬于汧渭之間, 馬大蕃息. …… 於是孝王曰: 「昔伯翳爲舜主畜, 畜多息, 故有土, 賜姓嬴. 今其後世亦爲朕息馬, 朕其分土爲附庸.」 邑之秦, 使復續嬴氏祀, 號曰秦嬴.”).

75) 『春秋左傳』(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81) 僖公28年夏4月條, p.460, “晉車七百乘, 韞、鞞、鞅、鞞.”

되었으며,<sup>76)</sup> 북방의 유목 세력들과도 점점 더 잦은 접촉이 발생하면서 선진화된 무기와 전략이 요구되었고, 그 방안으로 기병이 도입되었다. 무장한 기마가 기동력을 바탕으로 돌격할 때의 위압감은 가공할 살상력과 더불어 시청각적 효과를 통해 적진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국시대 각국은 북방 유목 세력의 전범이었던 기병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군사개혁을 단행하였다. 대표적으로 趙의 武靈王은 내정개혁의 일환으로 ‘胡服騎士’라고 일컫는 양식을 도입하여 군사력의 증강을 꾀했는데 이는 李牧이 흉노와의 전쟁에 騎兵 13,000을 동원하였다는<sup>77)</sup> 기록을 통해 입증된다. 『史記』에서 蘇秦과 張儀가 유세하며 연나라는 수레 600乘, 말 6,000필,<sup>78)</sup> 강대국 조나라는 수레 1,000乘, 말 10,000필,<sup>79)</sup> 위나라는 수레 600乘, 말 5,000필,<sup>80)</sup> 초나라는 수레 1,000대, 말 10,000필,<sup>81)</sup> 진나라는 수레 1,000乘, 말 10,000필을 가지고 있다는<sup>82)</sup> 등 각국의 군사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시대에는 대체적으로 각국이 기병용 말 만 필 정도를 갖추고 있을 만큼 말 보유량이 늘어났음은 분명하다.

이후 전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騎兵이 차츰 별도의 주력부대로 구성되었고<sup>83)</sup> 秦漢시대가 되면 匈奴·姜 등 유목 세력과의 전쟁이 빈번해지

76) Cho-yun Hsu, *Ancient China in Transition: An Analysis of Social Mobility, 722-222 B.C.*,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pp.62-63.

77) 『史記』卷70「廉頗藺相如列傳」, p.2450, “李牧至, 如故約. 匈奴數歲無所得. 終以爲怯. 邊士日得賞賜而不用, 皆願一戰. 於是乃具選車得千三百乘, 選騎得萬三千匹, 百金之士五萬人, 穀者十萬人, 悉勒習戰. 大縱畜牧, 人民滿野.”

78) 『史記』卷69「蘇秦列傳」, p.2243,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六百乘, 騎六千匹, 粟支數年.”(밑줄은 필자 강조)

79) 『史記』卷69「蘇秦列傳」, p.2247, “趙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千乘, 騎萬匹, 粟支數年.”(밑줄은 필자 강조)

80) 『史記』卷69「蘇秦列傳」, p.2255, “今竊聞大王之卒, 武士二十萬, 蒼頭二十萬, 奮擊二十萬, 廝徒十萬, 車六百乘, 騎五千匹.”

81) 『史記』卷69「蘇秦列傳」, p.2259, “楚, 天下之疆國也; …… 地方五千餘里, 帶甲百萬, 車千乘, 騎萬匹, 粟支十年.”

82) 『史記』卷70「張儀列傳」, p.2289, “秦地半天下, 兵敵四國, 被險帶河, 四塞以爲固. 虎賁之士百餘萬, 車千乘, 騎萬匹, 積粟如丘山.”

83) 정하현, 「秦漢代 말[馬]의 이용과 需給 構造」,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古

며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졌다. 전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은 주로 중원의 나라 간에 이루어졌으나 중원이 통일된 이후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유목 세력이었다. 특히 유목 세력의 결집으로 성장한 흉노는 변경의 큰 골칫거리였다. 흉노의 성숙한 기병조직은 여전히 보병 위주였던 중원의 군사력에 비해 월등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秦漢 제국 역시 기병의 확충과 단련을 절실하게 여기게 한 요소였다. 바꿔 말하자면, 기병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으며, 유목세력과의 싸움을 통해 기병의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기마유목민에게 대응하는 방식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마병 위주의 전술을 짜는 것이었고, 漢文帝 시기 흉노와의 전투에서 車騎 8만 5천기를 파병하였고<sup>84)</sup> 이후 10만 기 이상을 대동한 사례도<sup>85)</sup>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중국에 말이 도입된 이래로 점차 그 효용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수량이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략 물자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말이 국력과 직결되는 자원이기에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이나 칼, 활 등의 무기와 마찬가지로 말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각종 정책을 통해 말의 확보와 보호에 힘썼다.

군사용으로 쓰이는 騎馬와 함께 일반 郡縣의 縣廷이나 郵驛 시설에서 傳·驛馬도 요긴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秦漢 제국이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해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後漢 王允이 “蕭何が 秦으로 진 입하였을 때 문서를 먼저 收拾하였다. 漢이 능히 九州를 제압한 것은 문서의 힘이며 문서로 천하를 통어하였다”고 설파했듯이, 秦漢시대에는 郡縣制라는 일괄적 지배 체제와 문서행정이라는 행정 시스템을 골자로 삼았다. 이는 말단의 鄉里 조직에서부터 중앙의 기구까지 긴밀한 연락망을 갖추고, 이들을 하

---

代中國의 理解』 1,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p.254-255.

84) 『史記』 卷110 「匈奴列傳」, p.2895, “於是孝文帝詔丞相灌嬰發車騎八萬五千, 詣高奴, 擊右賢王.”

85) 『漢書』 卷6 「武帝紀」, p.189, “勒兵十八萬騎, 旌旗徑千餘里, 威震匈奴.”; 同書 卷8 「宣帝紀」, p.244, “凡五將軍, 兵十五萬騎, 校尉常惠持節護烏孫兵, 咸擊匈奴.”



나의 帝國으로 연결시키고자 함이었다. 황제가 제국의 온 사정을 파악하며 말단 鄉里 조직까지 그 권력을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거미줄처럼 조밀하게 짜인 문서전달 시스템을 완비하고, 관리가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縣廷에서는 傳車와 傳馬를 구비하고 제국의 전역에 郵傳 기구를 설치하여 官吏의 공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해주었다. 지방 관리들의 출장이나 공무를 위해 일찍부터 傳舍가 설치되어 傳車와 傳馬를 제공하였고,<sup>86)</sup> 후에는 驛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驛을 설치하면서 문서 전달의 신속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관련 규정을 법률로 정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郵驛 기구의 실제 설치 상황은 어떠했을까? 漢代의 律令에 따르면 郵의 설치는 10리마다 하나씩 설치되었다고 한다. 다만 南郡의 강수 이남에서 索縣 남쪽 경계에 이르기까지는 20리마다 하나씩 설치하는데,<sup>87)</sup> 이는 남방의 지리적 환경이 늪지나 강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을 이용한 驛의 경우는 30리마다 설치되었는데,<sup>88)</sup> 이 경우 역시 육로를 이용했으므로 郵의 경우처럼 남방 지역에는 驛이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곳은 水路를 이용하여 문서나 물자를 수송했을 것으로 보인다.<sup>89)</sup> 각 교통요지에 설치된 종합 郵傳 기구인 置 역시 새롭게 마련되어 늘어난 문서 전달 업무를 처리하였다.<sup>90)</sup>

86) 『二年律令』「傳食律」, p.183, “發傳所相(?)去遠, 度其行不能至者□□□□長官皆不得釋新成. 使非有事, 及當釋駕新成也, 毋得以傳食焉,<sup>229)</sup> 而以平賈(價)責錢. 非當發傳所也, 勿敢發傳食焉. 爲傳過員, 及私使人而敢爲食傳者, 皆坐食臧(贓)爲盜.<sup>230)</sup>”

87) 『二年律令』「行書律」, p.198, “十里置一郵. 南郡江水以南至索(索)南界, 廿里一郵.<sup>264)</sup>”

88) 『後漢書』第29「輿服志」上, p.3651. “驛馬三十里一置.”

89) 里耶秦簡의 16-52簡은 道里를 기록했는데, 이에 의하면 평균 거리가 100리를 넘는다. 懸泉置나 敦煌에서 발견된 道里簡은 평균 거리가 60여 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里耶의 경우 수로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90) 『後漢書』卷68「郭符許列傳」, p.2231, “知范特祖郵置之役, [說文曰:「郵, 境上傳書舍也.」廣雅曰:「郵, 驛也.」置亦驛也. 風俗通曰:「漢改郵爲置. 置者, 度其遠近之

郵驛 기구의 발달은 지방에까지 말을 구비할 여건을 만들었다. 그곳에 배치된 傳驛馬는 수량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2필 이상에서 10필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sup>91)</sup> 懸泉置漢簡에서 발견된 『傳馬名籍』에 따르면 懸泉置에는 10여 필의 傳馬가 갖추어져 있었고, 懸泉置의 말이 缺損하여 새로 말을 보충하였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sup>92)</sup> 각 置마다 고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말의 수량이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 시설과 물자는 국가에서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다.

相國이 長沙國 승상의 문서를 올렸다. (그 문서에 이르기를) “長沙의 땅은 비습하여 말이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아, 置가 이지러져 1駒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傳馬도 없습니다. [關]中에서 말을 구입하여 置의 傳馬를 수급하고 이를 常制로 삼기를 청합니다.” ·相國과 御史가 아뢰어 置의 말을 수급하도록 허락하기를 청하였다. ·制하였다. “좋다.”<sup>93)</sup>

국가는 帝室 소유의 말을 傳馬로 轉用하기도 하고<sup>94)</sup>, 말의 관외 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傳驛馬의 경우는 반출을 허락하기도 하였다.<sup>95)</sup> 신설된 郡縣에

閒置之也.]”

91) 『居延漢簡』(謝桂華·李均明·朱國昭, 『居延漢簡釋文合校』, 北京: 文物出版社, 1987. 이하 『居延漢簡』으로 略稱) 合18.18, p.29, “□四月戊辰朔丁丑誠北候□驛一所馬二匹鞍勒各一□”; 同書 合212.69, p.329, “傳馬十二匹”; 『居延新簡』(馬怡·張榮強 主編, 『居延新簡釋校』,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13. 이하 『居延新簡』으로 略稱) E.P.T59:268, p.593, “城北驛馬二匹 母鞍勒 □”

92) 『懸泉置漢簡』 V 1610②:10-20 「傳馬名籍」, pp.81-82, “傳馬一匹, …… 縣(懸)泉廄嗇夫欣敢言之, 謹移傳馬名籍一編, 敢言之.”

93) 『二年律令』 「津關令」, p.321, “十六、相國上長沙丞相書言, 長沙地卑濕, 不宜馬, 置缺不備一駒, 未有傳馬, 請得買馬十, 給置傳, 以爲恒. ·相國、御史以聞, 請<sub>516</sub>許給置馬. ·制曰: 可.<sub>517</sub>”

94) 『漢書』 卷4 「文帝紀」 2年11月條, p.116, “詔曰: 「…… 太僕見馬遺財足, 餘皆以級傳置.”; 同書 卷51 「賈山傳」, p.2335. “陛下卽位, …… 省廄馬以賦與縣傳.”

95) 『二年律令』 「津關令」, p.321, “十六、相國上長沙丞相書言, 長沙地卑濕, 不宜馬, 置

우선적으로 배치된 것도 이러한 교통·연락을 위한 시설과 마필이었다.<sup>96)</sup> 국가에서 郵驛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말의 확충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말은 “軍國之用”<sup>97)</sup> 즉 軍用과 郵傳用으로 사용되어 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핵심물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말은 국가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자원이었고, 국가는 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장악하고자 하였다.

## 2. 養馬 비용과 芻稟稅 징수

이와 같이 국가에서는 군사 및 郵傳 등의 이유로 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의 관리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하 마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말에게는 식량·의료·관리 인원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무엇보다 소비하는 사료의 양이 많아, 軍馬의 한 달 사료 값으로 둔전병 1인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sup>98)</sup> 이 표현은 다소 과장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에게 지급하는 식량이 사람의 것을 상회하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먼저 말이 소비하는 식량의 양과 그 비용을 추산해보도록 하자.

馬牛當食縣官者，糝以上牛日芻二鈞八斤；馬日二鈞□(八)斤，食一石

---

缺不備一駟，未有傳馬，請得買馬十，給置傳，以爲恒。·相國、御史以聞，請<sup>516</sup>許給置馬。·制曰：可。<sup>517</sup>”

96) 『史記』卷30『平準書』, p.1440, “南陽、漢中以往郡，各以地比給初郡吏卒奉食幣物，傳車馬被具。”

97) 『史記』卷30『平準書』, p.1419, “益造苑馬以廣用，[【索隱】謂增益苑圃，造廄而養馬以廣用，則馬是軍國之用也。]”

98) 『漢書』卷69『趙充國傳』, p.2987, “軍馬一月之食，度支田土一歲，……”

十六斤, 芻藁半(혹은 □□藁□). 乘輿馬芻二藁一. 牝·玄(驢)食之<sup>421</sup>各半其馬牛食. 僕牛日芻三鈞六斤, 犢半之. 以冬十一月藁之, 盡三月止. 其有縣官事不得芻牧者, 夏藁之如冬<sup>422</sup>, 各半之<sup>99</sup>).<sup>423</sup><sup>100)</sup>

二年律令의 말에 대한 사료 지급 규정이다.<sup>101)</sup> 이 조문을 보면 앞서 지적하였듯 馬牛가 縣官에서 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료의 지급 량과 배합비율을 나이와 종류에 따라 달리하였다. 그러나 이 簡文이 비교적 完整的 형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芻藁半(혹은 □□藁□)”의 釋讀 문제이다. 둘째, 乘輿馬의 사료 지급 규정인 “芻二藁一”의 해석이 “芻 2鈞, 藁 1鈞”인가 “芻 2 대 藁 1의 비율”인가에 관한 것이다. 셋째, “食一石十六斤”이 牛馬의 하루 사료 支給量의 합계인가 馬의 芻藁 支給量의 합계인가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세 가지의 논점 모두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간단한 둘째 문제 “芻二藁一”의 해석부터 시작하자.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소와 말의 日食量을 鈞·斤의 중량단위를 사용하여 표기하다가, 갑자기 “芻二藁一”에서는 중량단위를 생략하다가 다시 僕牛의 日食量을 “三鈞六斤”으로 적고 있다는 것이다. “芻二藁一”이 “芻二鈞, 藁一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량단위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99) 整理小組는 422簡과 423簡의 내용이 이어진다고 여기고 같은 條文으로 묶어 놓았다. 그러나 富谷至는 이와 같은 編連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문을 표하였다.

100) 『二年律令』『金布律』, p.251.

101) 『算數書』에도 말의 식량에 관련한 기록이 보인다(『算數書』(張家山漢簡『算數書』研究會 編, 『漢簡『算數書』-中國最古の數學書-, 京都: 朋友書店, 2006) 『傳馬』, p.119, “傳馬. 傳馬, 日二<三>匹共芻藁二石, 令芻三而藁二. 今馬一匹前到. 問, 予芻藁各幾何. 曰……”). 이에 따르면 芻와 藁의 비율은 3:2가 되지만, 『算數書』는 일종의 학습서로서 산수 문제를 내는 것이므로 실제의 규정을 반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律令과 算數書의 서사 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를 현실 규정으로 인용하는 연구자도 많으니 참고할 만하다.

그런데 아무런 중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료의 ‘量’이 아니라 배합비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의 경우는 芻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배합비율을 표기할 필요가 없지만, 말의 경우는 芻稿를 함께 공급하므로 각각의 양을 별도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문맥상 乘輿馬의 사료 “芻二藁一”은 “芻藁의 배합비율 2:1”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바로 앞의 “芻藁半(혹은 □□藁□)”도 같은 이유로 일반 말의 芻稿 배합비율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sup>102)</sup>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규정상 사료지급은 일반 말에게는 芻와 藁를 1:1의 비율로, 乘輿馬에게는 2:1의 비율로 지급해야 하였다.

다음은 “食一石十六斤”이 무엇을 양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다. “馬日二鈞□(八)斤”이 나온 뒤에 왜 또다시 “食一石十六斤”이 나왔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1石 16斤이 2鈞 8斤의 2배수이므로<sup>103)</sup> 말의 식량 芻 2鈞 8斤과 藁 2鈞 8斤의 총합일 가능성, 둘째는 牛日 芻 2鈞 8斤과 馬日 2鈞 8斤을 더한 값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sup>104)</sup> 전자의 근거는 “食一石十六斤”의 위치가 말의 日食과 芻藁의 비율 서술 사이에 있어서, 말의 식량 지급과 그 비율을 서술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牛馬의 식량 총계를 적어놓으면 아무래도 어색하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말은 하루에 芻와 藁를 각각 2鈞 8斤씩 1:1의 비율로 총 1石 16斤을 소비하게 된다. 환산하면 성년 말은 하루에 芻·藁를 각각 16.864kg씩 총 33.728kg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말이 소보다 2배를 더 먹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sup>105)</sup>

<sup>102)</sup> 도판을 보면 “食一石十六斤”과 “乘輿馬芻二藁一” 사이는 네 글자가 들어가기에는 간격이 좁기에 “□□藁□”으로 읽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백이나 잔결된 글자의 형태로 볼 때 “芻藁半”으로 읽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sup>103)</sup> 1鈞은 30斤(7,440g)이고, 4鈞은 1石이다(『漢書』卷21上『律曆志』上, p.969, “三十斤爲鈞. 四鈞爲石.”).

<sup>104)</sup> 京都大學本 주석서는 이것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제시할 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富谷至 編, 『江陵張家山二四七號墓出土漢律令の研究』, 京都: 朋友書店, 2006, pp.268-269). 『二年律令與奏讞書』에서는 별도로 注를 달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慘以上牛日芻二鈞八斤”과 “馬日二鈞□(八)斤” 사이에 세미콜론을 삽입한 것으로 보아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듯하다(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 p.251).

元代の 기록을 살펴보면 말이 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하루에 草 12斤, 料 5升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sup>106)</sup> 草를 환산한 무게는 7~8kg 정도가 된다.<sup>107)</sup> 그렇다면 더 많은 열량을 내는 곡물사료인 料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秦漢시대의 말의 식량과 3배 이상 무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현대 말의 경우도 하루에 건초 8~9kg을 먹는다고 하므로<sup>108)</sup> 말의 품종과 사료의 질이 시대가 흐르면서 달라졌어도 元代와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리라고 추측 된다. 따라서 “一石十六斤”이 말의 단독 사료 량이라는 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해석은 서술에 있어서 불필요한 표현이 중복된다는 문제도 생긴다. “一石十六斤”이 말의 단독 사료 량이라고 가정하면 바로 앞에 굳이 “馬日二鈞八斤”을 서술할 필요가 없다. 즉 말의 하루 식량을 두 번 반복하여 서술할 필요가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33여 kg의 사료가 말의 하루치 식량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食一石十六斤”이 의미하는 바는 말의 하루 芻藁 소비량의 합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sup>109)</sup>

하지만 굳이 말과 소의 하루 芻藁 지급량을 더하여 기록했다는 것도 여전히 어색하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陳偉의 새로운 釋讀 방법을 참고할 만하

105) 일반적으로 소는 체중의 3~4%의 사료를 섭취하고, 말은 체중의 2~2.5%를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106) 『元典章』(陳高華 等 點校,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11) 卷16 「戶部」2 分例 使臣定下使臣分例, p.559, “長行馬使臣: …… 外據馬疋草料, 亦依本部所擬支遣. 馬一疋, 日支草一十二斤、料五升, 自十月爲頭, 至三月終住支.”(밑줄은 필자 강조)

107) 吳承洛, 『中國度量衡史』, 上海: 上海書店, 1984, pp.64~74.

108) 사라 필리너 저, 한국마사회 경마연구원 편역, 『말의 영양과 사양관리』, 과천: 한국마사회, 2002, p.209.

109) 上記의 과정을 통해 『二年律令』 421-423簡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馬牛가 縣官에서 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3歲 이상의 牛는 날마다 芻 2鈞 8斤, 馬는 날마다 2鈞 8斤으로 [총] 1石16斤을 사료로 지급한다. 芻와 藁의 비율은 반반으로 한다. 乘輿의 馬는 芻는 2, 藁는 1[의 비율로] 지급한다. 2歲의 牛, 1歲의 馬에게 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각각 그 [馬牛 사료의] 半分으로 한다. 僕牛는 날마다 芻 3鈞 6斤[을] 지급하고, 송아지는 그것의 半分으로 [지급]한다. 冬 11월부터 이것을 지급하고 3월이 다하면 중지한다. 縣官에 일이 있어 芻牧을 할 수 없는 경우, 방목하지 못한다면 여름에도 겨울처럼 지급한다. 각각의 半分으로 한다.”

다. 그는 “馬日二鈞□(八)斤”을 “馬日二匹共”이라고 釋讀하였는데, 수레를 끄는 傳馬는 8마리에게 함께 사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을<sup>110)</sup> 생각하면 상당히 가능성 있는 釋讀이다. 또한 『算數書』 중 말의 식량을 구하는 산수 연습 문제는 “傳馬日二(三)匹共芻藁二石, 令芻三而藁二”<sup>111)</sup>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예문은 비록 문제를 내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지만, 그 서술 방식이 律令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를 참고로 하면 陳偉의 釋讀 방식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제 남은 것은 말의 하루 芻藁 소비량이 2鈞 8斤이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2鈞 8斤은 환산하면 16.864kg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현재 말에게 지급하는 사료의 양이 8~9kg인 것에 비해 많다. 그러나 元代나 현대의 말이 먹는 사료는 草만 계산한 것이므로 秦漢律에 규정된 사료지급에서 건초에 해당하는 芻의 무게만을 따지면 약 8kg이다. 따라서 사료 총 무게가 16.864kg일지라도 열량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며, 말의 하루 芻藁 소비량은 2鈞 8斤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알아 볼 것은 급여된 사료의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 하는 것이다. 『二年律令』 「田律」에 규정된 芻藁의 환산 납입금에 따르면<sup>112)</sup> 芻는 1石에 15錢, 藁는 1石에 5錢에 해당한다.<sup>113)</sup> 이를 토대로 말 1필당 소모하는 芻藁의 량과 가격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해 보았다.

110)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倉律, p.31, “駕傳馬, 一食禾, 其顧來有(又)一食禾, 皆八馬公. 其數駕, 毋過日一食. 駕縣馬勞, 有(又)益<壹>禾之.”

111) 『算數書』 「傳馬」, p.119, “傳馬. 傳馬, 日二<三>匹共芻藁二石, 令芻三而藁二. 今馬一匹前到. 問, 予芻藁各幾何. 曰……”

112) 『二年律令』 「田律」, p.188, “芻藁節貴於律, 以入芻藁時平賈(價)入錢.<sup>242)</sup>”

113) 『二年律令』 「田律」, p.187, “入頃芻藁, 頃入芻三石; 上郡地惡, 頃入二石; 藁皆二石. 令各入其歲所有, 毋入陳, 不從令者罰黃金四兩. 收<sup>240)</sup>入芻藁, 縣各度一歲用芻藁, 足其縣用, 其餘令頃入五十五錢以當芻藁. 芻一石當十五錢, 藁一石當五錢.<sup>241)</sup>”(밑줄은 필자 강조)

<표 2> 芻藁 환산표

	시간 단위	사료 량	kg으로 환산	錢價	비고
芻	1개월(30일)	1020斤(8.5石)	252.96kg	약 127.5錢	기준 1斤: 248g
	1년(동계150일)	5100斤(42.5石)	1,264.8kg	637.5錢	
	1년(360일)	8670斤(69.75石)	2150.16kg	약 1083.75錢	
藁	1개월	1020斤(8.5石)	252.96kg	약 42.6錢	
	1년(동계150일)	5100斤(42.5石)	1,264.8kg	212.5錢	
	1년(360일)	8670斤(69.75石)	2150.16kg	약 360.672錢	
합 계	1개월	2040斤 (=17石)	505.92kg	<b>약 170.1錢</b>	
	1년(동계150일)	10200斤(=85石)	2529.6kg	약 850.5錢	약 15.4頃分 (1頃 55錢)
	1년(360일)	17340斤(139.5石)	4300.32kg	약 1444.422錢	

정리한 표를 참고하면, 연간 말 1필 당 식량으로 소비되는 금액은 동계에 만 적용할 경우 약 850.5錢이고 나머지 계절을 포함할 경우 약 1444.422錢에 상당한다. 물론 이것은 법률로 정한 기본적인 사료 양으로 계산하였기에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律令에는 말이 노동을 했을 때 추가로 사료를 지급하라는 條文이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sup>114)</sup> 또한 말은 사료를 급여하기 전에 갈증을 해소시켜야 하므로<sup>115)</sup>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별도로 필요했을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養馬에 드는 비용은 사료만을 지급하는 것을 훨씬 상회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말에게 공급된 사료의 값을 秦漢시대 물가로 따졌을 때, 실질적인 가치는 어땠을까? 국가에서 식사를 제공하였던 徒隸 등은, 관부가 부양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더 좋은 비교대상이 될 것이다. 아래는 관부의 노역에 종사한 徒隸에게 지급한 식량에 관한 기록이다.

隸臣妾이 관청에서 복역할 경우, 隸臣에게는 매월 2石의 식량을 지급하고, 隸妾에게는 1.5石을 지급하며, …… 小城旦 혹은 小隸臣이 관청에서 노동할 경우, 매월 1.5石의 식량을 지급하고, 노동할 수 없

114)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倉律, p.31, “駕傳馬, 一食禾, 其顧來有(又)一食禾, 皆八馬公. 其數駕, 毋過日一食. 駕縣馬勞, 有(又)益<壹>禾之.”

115) 성년 말은 하루 50~60리터의 물을 마신다.



는 경우에는 매월 1石의 식량을 지급한다. ……<sup>116)</sup>

徒隸의 식량은 나이·성별·노역 유무 등을 고려하여 月 단위로 지급하였다. 성인 남성인 隸臣은 2石, 성인 여성인 隸妾은 1.5石, 미성년 남성은 1.5石의 식량을 제공하였다. 한 가지 염두 해 두어야 할 점은, 사람에게 지급한 식량의 단위는 石일지라도 무게가 아닌 부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睡虎地秦簡을 참고로 하면 1石 무게의 벼는 부피로 환산하면 20斗가 된다.<sup>117)</sup> 10斗는 1石(부피)이므로 石의 용량 대 중량 비는 2:1이고, 따라서 성인 남성의 월별 식량지급은 중량 1石에 해당한다. 전술하였듯이 말의 1개월 식량 지급량은 17石의 芻藁이므로 무게만 놓고 따졌을 때 말이 사람의 식사량보다 17배나 더 많다. 芻藁를 錢으로 환산했듯이 미곡도 錢으로 환산한 뒤에<sup>118)</sup> 이를 비교해보면,<sup>119)</sup> 말의 사료 값은 170錢, 사람의 식비는 40~60錢으로, 비용으로 치더라도 말에게 드는 것이 사람의 세네 배에 육박하는 만큼, 말을 사육하는 데에는 엄청난 부담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말의 식비가 사람의 것에 비해 수 배 이상이 든다는 것은 前節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많은 비용은 어떻게 충당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

116)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倉律, p.32, “隸臣妾其從事公, 隸臣月禾二石, 隸妾一石半; 其不從事, 勿稟. 小城旦、隸臣作者, 月禾一石半石; 未能作者, 月禾一石. 小<sub>49</sub>妾、舂作者, 月禾一石二斗半斗; 未能作者, 月禾一石. 嬰兒之母(無)母者各半石; 雖有母而與其母冗居公者, 亦稟之, 禾<sub>50</sub>月半石. 隸臣田者, 以二月月稟二石半石, 到九月盡而止其半石. 舂, 月一石半石. 隸臣、城旦高不盈六尺五寸, 隸妾、舂高不盈<sub>51</sub>六尺二寸, 皆爲小; 高五尺二寸, 皆作之.”(밑줄은 필자 강조)

117)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倉律, p.30, “爲粟廿斗, 舂爲米十斗; 十斗粲, 毀(毀)米六斗大半斗. 麥十斗, 爲麴三斗. 叔(菽)、荅、麻十五斗爲一石. ●稟毀(毀)稗者, 以十斗爲石.”(밑줄은 필자 강조)

118) 『漢書』卷24上『食貨志』上, p.1125, “石三十, 爲錢千三百五十, ……”; 『里耶秦簡』(陳偉 主編,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2) 8-63, p.48, “廿六年三月壬午朔癸卯, …… 事荅不備, 分<sub>1</sub>負各十五石少半斗, 直錢三百一十四.”(米 1石≒20.5錢)

119) 여기서 다시 부피의 단위 石을 사용한다. 簡牘에 나오는 穀價의 표기는 부피를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면 그 대부분은 세금의 형태로 모두 민간에 전가되었다. 이하 말의 사료로 사용된 芻藁의 징수 기준과 규모는 어떠하였는지, 또 민간에서 芻藁 납부의 부담은 어느 정도였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秦律에 명시된 芻藁 납입의 원칙이다.

●金布律에서 말하길, 戶賦를 내는 사람은 泰庶長 이하부터이다. 10월에는 戶마다 芻 1石15斤을 내고, 5월에는 戶마다 16錢을 낸다. 布로 내고자 하는 경우 그것을 허락한다. 10월의 戶賦는 12월 朔日 까지 거두고, 5월의 戶賦는 6월 望日까지 거두며, 해마다 泰守에게 운송한다. 10월 戶賦에서 芻를 내지 않고 錢을 낸 경우 16錢을 받는다. 吏는 먼저 印하고 斂한다. 里典·里父老가 戶賦錢을 가지고 있도록 하지 말라.<sup>120)</sup>

매 頃의 토지마다 芻藁를 납입해야 함에, 받은 토지의 면적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데, 토지의 개간 여부를 불문하고, 매 頃마다 芻 3石과 藁 2石을 납입해야 한다. 芻는 식물의 마른 잎과 형클어진 풀을 한 다발 이상씩 묶어 납부하더라도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 芻藁를 납입할 때, [납입자가] 芻藁를 운송해 와서 그 量이 [납부해야 할 분량과 일치하는지를] 측정하여 납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sup>121)</sup>

상기한 바에 따르면 芻藁의 징수가 頃芻藁와 戶芻藁, 즉 芻藁를 납입함에 있어 각각 징수의 기준을 田地의 일정비율과 戶 단위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징수 기준으로 미루어보건대 頃芻藁는 租에 속하는 세금, 戶芻藁는 賦에 속하는 세금이라 생각된다. 芻藁는 실물 징수를 원칙으로 했으므로 田地

<sup>120)</sup> 『嶽麓秦簡』 4, p.107, “●金布律曰: 出戶賦者, 自泰庶長以下, 十月戶出芻一石十五斤; 五月戶出十六錢, 其欲出布者, 許<sub>118/1287</sub>之. 十月戶賦, 以十二月朔日入之, 五月戶賦, 以六月望日入之, 歲輸泰守. 十月戶賦不入芻而入錢<sub>119/1230</sub>者, 入十六錢. 吏先爲? 印, 斂, 毋令典、老挾戶賦錢.<sub>120/1280</sub>”

<sup>121)</sup>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田律, p.21, “入頃芻藁, 以其受田之數, 無狼(墾)不狼(墾), 頃入芻三石、藁二石. 芻自黃蘗及薺束以上皆受之. 入芻藁, 相<sub>8</sub>輪度, 可毆(也).”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戶芻藁의 납부 일정이 10월로 설정된 것도 田地에서의 수확이 끝나는 시점을 고려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頃芻藁의 한 해 징수는 1頃을 기준으로 芻 3石・藁 2石이므로 受田制에 의해 인민에게 受田된 토지를 1頃이라고 가정할 때 각 戶는 연간 芻 3石・藁 2石을 납부해야 한다. 추고의 전납 환산 기준인 芻 1石에 15錢, 藁 1石에 5錢을 근거로 계산하면 芻 3石과 藁 2石은 모두 55錢이 된다. 前章에서 계산한 말의 1년 치(정확히 말하자면 동계) 芻藁 소모량이 약 850.5錢이므로 1頃 당 징수액 55錢의 약 15배에 달하며, 약 15.4頃의 경지에서 거둔 1년 치의 芻藁稅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戶芻藁의 경우에는 芻 1石15斤을 납부하고, 錢으로 환산한 금액은 16錢이기에 약 53戶의 1년 戶芻藁稅에 상당한다. 만일 일반 소농이 1戶마다 1頃의 수전지를 가지고 있어 戶芻藁와 頃芻藁 모두를 부담한다면 각 호는 매년 71錢의 추고세를 납부하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 일반 소농 열두 가구에서 芻藁를 거두어 겨우 말 한 마리의 식량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를 납부할 수 없어 임금으로 충당한다면 며칠의 노동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秦代와 漢初까지는 하루 노역으로 받는 돈이 식비를 포함하면 8錢,<sup>122)</sup> 식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6錢이었다. 이 값은 말이 하루에 소비하는 추고 값인 5.67錢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경지 당 1년에 납부할 71錢이라는 액수는 열흘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말 한 마리의 1년 식비로 따지면 106일~140여 일의 임금에 상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芻藁의 징수는 민간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반 소농 가계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田租와의 비교를 통해 그 부담을 다시 한 번 비교해보자.

---

122) 漢簡에서는 1일의 노역이 22錢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벌금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원래 물가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을 가지고 하루 일반의 임금으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張家山漢簡』「興律」, p.244, “乏繇(徭)及車牛當繇(徭)而乏之, 皆貲日廿二錢, 有(又)賞(償)乏繇(徭)日, 車[401]”). 原釋文에는 12錢이었는데, 『二年律令與奏讞書』에서는 22錢으로 改釋하였다. 또한 6錢과 8錢이 정도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의 경우에 임금이 이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漢書』『食貨志』에서 전하는 전국시대 魏의 李悝가 주창한 ‘盡地力之教’에 의하면 受田한 소농의 한해 경작의 평균 수입은 米 150石이고, 그 중 田租로 10분의 1인 15石을 낸다고 한다. 秦의 商鞅 변법이 李悝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므로, 이 기록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秦의 인민도 1년의 田租로 15石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 풍흉이나 기타 요소를 제외하고 이 수치로 단순 비교할 경우, 71錢에 상당하는 芻藁稅는 1石 20.5錢의 穀價로 계산했을 때 米 3石 이상을 구입 가능하고, 따라서 芻藁稅는 田租의 23% 가량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물론 芻藁를 米의 가치나 효용, 이것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강 錢으로의 환산 가격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민이 납부해야 했던 芻藁의 가치가 결코 적지 않았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민간에서의 전체 추고 수확량 가운데 90%가 관에 납입되었다.<sup>123)</sup> 이는 최소의 양을 제외한 芻藁가 거의 모두 관부에 징수되었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대 중국이 철저한 잉여생산의 수탈을 바탕으로 齊民支配를 구현했음은 재차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 등을 남겨두었던 데 반해, 芻藁는 牛馬의 사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양을 남김없이 징수하였다. 이는 민간에서의 牛馬 사육을 무시하고 국가에서 추고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바이다. 또한 민간에서 가축을 사육하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추고를 징수하였기에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sup>124)</sup> 오로지 上家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돼지 한 마리, 개 한 마리, 암탉 수탉 각 한 마리를 사육할 수 있었고, 中家는 한 마리도 키울 수 없었다는 戰國시대의 기록은 이를 증명해 준다.<sup>125)</sup> 이처럼 가축의 사육이 민간에서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는, 결과적으로 牛馬의 사료인 芻藁를 90% 이상

123) 佐竹靖彦, 『商鞅田制考證』, 『史學雜誌』 96-3, 1987, pp.301-302.

124) 이성규, 『戰國時代 소농민의 생활』,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1,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p.115-117.

125) 『銀雀山漢墓竹簡』(銀雀山漢墓竹簡整理小組 編, 『銀雀山漢墓竹簡(壹)』, 北京: 文物出版社, 1985) 『守法守令等十三篇』 田法, p.146, “上家畜一豕、一狗、鷄一雄一雌. 諸以令畜者, 皆藏其本, 齋其<sub>943</sub>息, 得用之. 中家以下不能<sub>944</sub> ……”

국가에서 징수해 갔기 때문에, 그 사료를 따로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간에서 말이나 소를 키우지 않거나 민간에서의 가축 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축을 양육하는 데에는 국영농장이 민간의 것과 비교했을 때 더 필요한 자본과 기타 조건이 충분하고 우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徒隸나 黔首의 징발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의 보수와 확장, 그리고 풍부한 물자의 비축을 통해 국영의 가축 양육이 규모나 질적으로도 민간의 것을 앞설 수밖에 없다. 국가시설에 몰래 민간의 가축을 들여보내 기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律令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sup>126)</sup>

126) 『嶽麓秦簡』 5, “●御史言: 予徒隸園有令, 今或盜牧馬牛羊徒隸園中, 盡蹂其稼(稼). 請: 自今以來盜牧馬牛羊<sup>0962</sup> 徒隸園中, 壹以上皆貲二甲, 吏廢官, 宦者出宦而沒其私馬牛羊縣官. 有能捕誦告犯此令<sup>2108</sup> □□□□木它稼(稼)及食之, 皆令償之, 或入盜牧者與同灋. ●請: 諸盜牧馬<sup>1120+C4-2-1-7</sup>牛羊縣官園者皆用此令. ●廿<sup>0930</sup>”

### III. 漢代 馬政의 변화

#### 1. 漢初 민간 양마로의 점진적 이관

이상 睡虎地秦簡과 嶽麓秦簡을 중심으로 秦代 馬政의 대강과 그 소요 비용을 추산해 보았다. 국가가 군사 및 문서행정 등 각 방면에서 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말의 확보와 관리를 律令으로 규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던 점은 漢代에도 동일하며, 이 점은 이미 I 장에서 二年律令의 검토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漢代에 들어오면서 국가 주도의 馬政 체계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한다. 이하 시기별로 그 변화와 그 원인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前漢 초기의 律令인 二年律令을 秦律과 비교하면, 비록 그 시간적 격차가 수십 년에 불과하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확인된다.

卿 이하는 5월에 戶마다 賦 16錢, 10월에 戶마다 芻 1石을 납부한다. 해당 縣의 사용분이 충족되면, 나머지는 入頃芻律에 따라 錢으로 납부한다.<sup>127)</sup>

頃마다 芻稾를 들이는데, 1頃마다 芻는 3石으로 한다. 上郡은 土質이 좋지 않으니 1頃마다 2石으로 한다. 稾는 모두 2石으로 한다. 각각 당해 [생산된] 것을 납입시키도록 하고, 이전의 (오래된) 것은 납입토록 하지 말라. 令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벌금 황금 4兩이다. 芻稾를 수확하여 납입할 때에는 縣에서 각각 1년에 사용할 芻稾을 헤아려서 縣의 사용분이 충족되면, 그 나머지에 대해 頃 당 55전을 납입하여, 芻稾에 해당하도록 한다. 芻 1石은 15錢에 해당하고, 稾 1石은 5錢에 해당한다.<sup>128)</sup>

127) 『二年律令』 「田律」, p.193, “卿以下, 五月戶出賦十六錢, 十月戶出芻一石, 足其縣用, 餘以入頃芻律入錢.”<sup>255)</sup>

128) 『二年律令』 「田律」, p.187, “入頃芻稾, 頃入芻三石; 上郡地惡, 頃入二石; 稾皆二石. 令各入其歲所有, 毋入陳, 不從令者罰黃金四兩. 收<sub>240</sub>入芻稾, 縣各度一歲用芻稾, 足其縣用, 其餘令頃入五十五錢以當芻稾. 芻一石當十五錢, 稾一石當五錢.”<sup>241)</sup>

인용한 두 조문은 二年律令에서의 芻稟 납부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앞서 살펴본 秦代의 규정과는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다. 戶芻稟를 내야 하는 범위가 秦律에서는 泰庶長(大庶長) 이하라고 표기하고 漢律에서는 卿 이하부터라고 표기하였으나, 卿이 大庶長 이하 左庶長 이상의 爵位를 가리키므로 양자는 표현이 다를 뿐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같다. 또한 戶芻稟의 규정이 秦律에서는 金布律에 속하는 반면, 漢律에서는 田律에 속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 표현 방식이라든가 형식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두 조문이 당시의 芻稟 징수 원칙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漢代에 芻稟稅의 징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우선 戶芻稟의 경우를 보자. 上記의 조문에 근거하면 漢律에서의 戶芻稟 납부 금액이 秦律의 것에 비해 芻 15斤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芻稟 징수 규정은 漢律에는 戶당 5월에 16錢을 내고 10월에 芻 1石을 봉납해야 하고, 秦律에는 戶당 5월에 16錢을 내고 10월에 芻 1石 15斤을 봉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에 따르면 漢代에는 秦代보다 오히려 매년 芻 15斤을 더 적게 낸다는 것인데, 15斤의 芻는 錢으로 환산했을 때 비록 2錢이 채 안되지만 이것을 내는 民의 입장에서는 10분의 1 이상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국가의 입장에서 거두어들이는 총 芻稟 규모로 따진다면, 戶당 15斤 썩의 감액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頃芻稟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의 규모가 줄어든다. 戶芻稟처럼 납부 금액이나 비율이 변하지는 않으나, 징수 대상에 관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납부 면제자가 늘어난다. 二年律令의 戶律을 보면 “卿 이상이 스스로 경종한 바의 戶田은 [田]租를 내지 않으며,<sup>129)</sup> 頃芻稟도 내지 않는다”<sup>130)</sup>

129) “自田戶田”의 의미에 대한 의견은 아직 하나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로, 종종 이 조문을 인용하면서도 두루뭉술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朱紹侯나 高敏 등은 이를 “많은 전택을 가지고 있고, 田租와 芻稟稅를 내지 않는 高爵者の 혜택”이라고 설명하였다(高敏, 『論西漢前期芻、稟稅制度的變化發展 - 讀《張家山漢墓竹簡》札記之二』, 『鄭州大學學報』 2002-7; 朱德貴, 『《史記》卷二二《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田租稅律”考』,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5-4). 그러나 賈麗英은 ‘自’字에 착목하여 좀 더 구체적인 해석으로, 스스로 경작한 高爵者の 전택이라고 보았다(賈

고 규정한 律文이 있어, 田租를 내지 않는 특정 신분 이상은 頃芻藁 역시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秦律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睡虎地秦簡에서 戶芻藁를 내는 대상은 大庶長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二年律令과 동일하지만, 頃芻藁에 대해선 따로 징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신분과 무관하게 모두 납부해야 할 것이라 추측된다. 秦代와는 다르게 頃芻藁에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므로, 頃芻藁의 징수 범위 역시 漢初가 되면 더 줄어드는 셈이다.

한 가지 더 특이한 부분은 律文의 말미에 “縣의 사용분이 충족되면, 나머지는 錢으로 납입하라”는 추가 조항이다. 이 조항은 秦律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나 漢律에서 중복해서 등장하므로, 編連이 잘못되거나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二年律令이 제정될 시기 즈음에 새로이 만들어졌던 조항일 공산이 크다. 물론 秦律을 보더라도 芻藁를 錢으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二年律令의 단계에 오면 官府에서 1년간 사용할 芻藁를 미리 계산하여, 그만큼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두 정해진 환산율에 맞추어 화폐로 납입하도록 하게끔 고정화되었다. 여기서 양자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요한 것은 芻藁稅의 折納과 錢納化는 官에서 비축할 수 있는 실물 芻藁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芻藁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인 만큼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芻藁가 가축 사료 이외의 용도로서 사용되었다는 연구도 있으나<sup>131)</sup>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 芻藁

---

麗英, 『漢代“名田宅制”與“田宅逾制”論說』, 簡帛網, 2007.08.09). 여기서는 이 해석을 따랐다.

130) 『二年律令』 『戶律』, p.218, “廩以上所自田戶田, 不租, 不出頃芻藁.”<sup>317)</sup>

131) 芻藁의 용도에 대해서 牛·馬의 사료 이외에도 官倉의 지붕 수리 재료, 지하 穀倉의 방습재, 제사의 供物 등으로 활용되었다는 연구가 있다(설배환, 『秦·漢時代 芻·藁稅와 그 이용 新釋』, 『慶尙史學』 26, 2010). 그러나 근거로 든 사례가 稽·茅·菹의 경우이고, 직접적으로 芻 혹은 藁가 명기된 것은 아니므로 보류해 둔다. 물론 이것들이 명칭만 다르고 원료는 芻藁일 가능성도 있고, 芻藁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秦漢律을 통틀어 牛馬의 사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업품의 원료 등으로 사



의 일차적인 쓰임은 牛馬의 사료였음은 분명하다.<sup>132)</sup> 芻藁를 당해 연도에 수확한 신선한 것으로만 납부해야 했던 까닭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芻藁의 錢納을 강제하는 것은, 縣에서 가축의 사료를 최소치만을 남겨두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漢代 세금의 錢納化 현상에 대한 지적은 일찍부터 있어왔으나,<sup>133)</sup> 芻藁의 경우는 錢으로 납부하게 되면 동물의 사료 확보라는 그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때문에 二年律令에 추가적으로 붙는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縣의 가축 생산을 제한하는 셈이다. 또 한편으로는 縣에서의 芻藁 잉여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秦漢시대 芻藁稅 변화에 초점을 맞춰 왔던 그간의 연구 중 많은 경우에서 戶芻藁를 漢代에 신설된 芻藁稅로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sup>134)</sup> 그래서 漢代에 들어와 芻藁稅가 증액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증액된 芻藁를 통해 漢代の 증가한 마필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토자료에 의해 秦代에 戶芻藁를 징수했으며, 한대에 들어와 감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秦末 漢初의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관리 체계가 이완되었고, 그 때문에 말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에 있었던 것 같다.

漢이 [막] 흥기하여서는 秦의 피폐함을 이어 받았으므로 丈夫는 군대에 종군하고 노약자들은 군량을 운반하였으며 노역은 繁重하고

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芻藁의 쓰임새는 牛馬의 사료라고 보는 데에는 의심할 나위가 없다.

132) 『漢書』卷87上「揚雄傳」, pp.3553-3554, “麋鹿芻藁與百姓共之, [師古曰:「芻所以(飯)〔飮〕牛馬. ……」.]”; 『史記』卷2「夏本紀」, pp.75-76, “百里賦納總, [【集解】孔安國曰:「甸內近王城者. 禾藁曰總, 供飼國馬也.」.]”

133) 혹자는 漢代의 화폐제도에 대하여 상품경제의 발달의 성과라고 설명하기도 한다(王鑫·孟妍, 「中國田賦制度變遷的探討」, 『韓中關係研究』 1-2, 2015). 그러나 상업을 통제했던 고대 중국에서 교환경제의 수준이 그토록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34) 沈明得, 「漢代馬政研究」, 臺灣國立中興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黃敬愚, 「簡牘所見西漢馬政」, 『南郡學壇』 2006-5; 高敏, 「論秦漢時期畜牧業的特徵和局限」.

財富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天子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갖추 수 없었고, 장군이나 재상도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齊民에게는 축적할 만한 것이 없었다.<sup>135)</sup>

위의 기록은 秦末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漢兼天下”가 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전해준다. 天子가 ‘鈞駟’를 구하지 못하고, 將相도 소가 끄는 수레를 탈 정도로 漢初에는 극심한 말의 부족을 겪었던 것 같다. 물론 차츰 사회가 안정되면서 상황은 호전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단시간 내에 養馬 규모를 확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당장 보유하고 있는 말의 수가 줄었다고 할지라도, 말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아무리 전쟁의 빈도가 줄어들고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어도, 전쟁이나 주변 세력들의 침입 혹은 내부 반란의 위협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위협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방위의 기본이며, 말은 각 지역에 설치된 郵驛에서 상시 구비해 두어야 하는 필수품이므로 말의 확보는 언제나 중요한 사안이 었다. 그런데 芻藁稅를 감액하는 조치는 官營 養馬의 확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만약 官營 養馬의 수를 줄인다고 부족해져도 어디에선가는 말을 조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까? 아래의 기록은 이 질문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지금의 법령은 民이 車騎馬 1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 명의 병역을 면제합니다. 車騎는 천하의 武備이므로 병역을 면제하고……民으로 하여금 入粟受爵하게 하여 五大夫 이상에 이르러도 이에 한명[의 병역만]을 면제할 따름이니, 이는 騎馬[를 양육하는] 공치사와는 서로 거리가 멉니다.<sup>136)</sup>

135) 『史記』 卷30 『平準書』 p.1417, “漢興, 接秦之弊, 丈夫從軍旅, 老弱轉糧餽, 作業劇而財匱, 自天子不能具鈞駟, 而將相或乘牛車, 齊民無藏蓋.”

136) 『漢書』 卷24上 『食貨志』上, pp.1133-1134. “今令民有車騎馬一匹者, 復卒三人. 車

이것은 文帝 시기 鼂錯가 올린 건의문의 일부로, 民이 말 1필을 소지할 경우 세 명을 復除한다고 법령에서 보장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을 ‘馬復令’이라고 하는데, 馬復令의 시행은 民間에서의 養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車騎馬 1匹만 가지고 있다면 세 명의 병역을 면제하므로, 入粟受爵으로 五大夫가 되는 것보다 더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에서 마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민간 養馬를 권장하는 국가의 의지가 매우 강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馬復令은 芻藁稅 감세와 맞물려 민간 養馬業을 권장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여기서 芻藁稅의 감액과 錢納化를 떠올려 보자. 민간에서 국가로 봉납하는 芻藁의 정도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官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먹일 芻藁의 양이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민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家畜 축산을 위한 芻藁가 민간에 비축·유통될 가능성이 증가한 셈이다. 즉 국가로 집중된 가축 사료의 집중이 다소나마 분산됨을 의미하고, 이는 官營 養馬의 비중도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표지로 파악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芻藁稅의 감액과 錢納化가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두 가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 할 수 있다.

물론 민간에서의 養馬가 소농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sup>137)</sup> 아무리 말의 먹이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말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며,<sup>138)</sup> Ⅱ장의 추산에 근거하면 冬季에만 사료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간 약 15頃 分の 芻藁가 소비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1頃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농민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減稅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마도

---

騎者, 天下武備也, 故爲復卒. …… 令民入粟受爵至五大夫以上, 乃復一人耳, 此其與騎馬之功相去遠矣.”

137) 『漢書』 卷72 『王貢兩龔鮑傳』, p.3075, “農夫父子暴露中野, 不避寒暑, 捫土杷土, 手足胼胝, 已奉穀租, 又出藁稅.”(밀줄은 필자 강조)

138) 馬價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동의 폭이 있으나 漢代의 일반적인 가격은 4,000 錢에서 5,000 錢으로 본다.

경제 수준이 중상위 이상 되는 대토지 소유자 및 芻藁稅를 면제 받은 有爵者 등이 이러한 혜택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어쨌거나 국가에서는 芻藁稅의 감세와 민간 양마 장려 정책을 통하여 말을 기를 만한 여건이 되는 대상을 통해 민간 養馬의 성행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필요한 말을 모두 국가에서 기르고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하므로 민간에 세금을 줄여주고, 간접적으로 말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後漢 시대의 자료이기는 하나, 변방에서 말에게 식량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죽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였고,<sup>139)</sup> 앞서 언급했듯이 말 한 마리를 기르는 비용이 둔전병 1인의 1년 식비에 상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말에 드는 비용은 국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다.<sup>140)</sup> 養馬의 비용, 특히 식비가 큰 부담이었던 것은 여러 차례 말의 식량을 감축시켰던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sup>141)</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戰國시대에서 前漢초기까지 국가의 기본 방침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하여 국가의 주요 산업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말은 騎馬用·傳車用 등으로 국가에서 반드시 장악하고 있어야 할 전략 물자였으므로 민간에 의한 養馬는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마필을 국가에서 항시 유지하는 것은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독점적 운영이라는 원칙 고수를 폐기하고, 한발 후퇴하여 민간 양마를 국가 수요에 이용하는 차선의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말 이외의 다른 주요 물자 관리에서도 확인된다.

…… 무릇 私的으로 鹵鹽을 제조하는 것, 濟水·漢水 일대에 있어

139) 『敦煌漢簡』(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編, 『敦煌漢簡(下)』, 北京: 中華書局, 1991)

164, p.226, “爲買芟莖長二尺束一大韋馬毋穀氣以故多物故”

140) 黃敬愚, 「簡牘所見西漢馬政」.

141) 『漢書』 卷72 「王貢兩龔鮑傳」, p.3073, “天子納善其忠, 乃下詔令太僕減食穀馬, 水衡減食肉獸, 省宜春下苑以與貧民.”; 同書 卷75 「眭兩夏侯京翼李傳」, p.3171, “太僕少府減食穀馬, 水衡省食肉獸.”

서 煮鹽 및 私有의 鹽井으로 煮鹽한다면 이것에 稅를 부과하고 국가는 1, 소유주는 5를 취한다. 銀을 채굴한다면 여기에 租를 부과하고 ……., 金을 산출한 것에는 租를 부과하고 2錢을 稅로 한다. 鑛山을 파는 자에 租를 부과함은 10錢당 1을 稅로 한다. 鐵을 채굴하는 자에는 1/5을 稅로 한다. 그 철로 기물을 제조한다면 또 1/5를 稅로 한다. 鉛을 채굴하는 자에는 1/10을 稅로 한다. 金을 채굴하는 자에게는 租를 부과함에 1인 1일당 2/15銖이다. 民이 사적으로 丹砂를 채굴한다면 여기에 租를 부과함이 …….(142)

秦律에서는 이러한 주요 산업을 직접 관리하려는 모습이 보였던 반면<sup>143)</sup> 二年律令에서는 私적으로 행하는 여러 산업을 인정하되,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국가가 중요시했던 주요 산업이 국가 주도 하에서 작동되었다면, 차츰 민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즉 주요 산업에 대해 민간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국가가 간접 경영한 것과 같다.<sup>144)</sup>

또한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했다. 秦代에는 백성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수레를 이용하여 물자를 수송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운수 노역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였다.<sup>145)</sup> 국

142) 『二年律令』 「金布律」, p.256, “有贖買其親者, 以爲庶人, 勿得奴婢. 諸私爲鹵(鹵) > 鹽煮濟漢, 及有私鹽井煮者, 稅之, 縣官取一, 主取五. 采銀租之, 縣官給橐(橐),<sup>436</sup> 銀十三斗爲一石, □石縣官稅□銀三斤. 其□也, 牢橐, 石三錢. 租其出金, 稅二錢. 租賣穴者, 十錢稅一. 采鐵者五稅一; 其鼓銷以<sup>437</sup>爲成器, 有(又)五稅一. 采鉛者十稅一. 采金者租之, 人日十五分銖二. 民私采丹者租之, 男子月六斤九兩, 女子四斤六兩.<sup>438</sup>”

143) 『睡虎地秦簡』 「秦律雜抄」, pp.84-85, “采山重殿, 貲嗇夫一甲<sup>21</sup>, 佐一盾; 三歲比殿, 貲嗇夫二甲而法(廢). 殿而不負費, 勿貲. 賦歲紅(功), 未取省而亡<sup>22</sup>之, 及弗備, 貲其曹長一盾. 大(太)官、右府、左府、右采鐵、左采鐵課殿, 貲嗇夫一盾<sup>23</sup>.”

144) 影山剛, 「前漢鹽鐵專賣制の一考察 -特に鐵器生産過程を中心として-」, 『岡山史學』 10, 1961.

145) 『睡虎地秦簡』 「效律」, p.75, “上節(卽)發委輸, 百姓或之縣就(僦)及移輸者, 以律論之.<sup>49</sup>”

가의 기본 방침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하여 관부의 물자를 운송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二年律令과 같이 漢初가 되면 선박의 보수 및 관리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배타적인 관영 중심 시스템을 포기하고, 차선으로 민간 운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다.<sup>146)</sup>

手工業 분야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흐름이 같다. 수공업은 마필 관리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기술자가 필요하였으므로,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분업을 행하고, 工人은 신분을 齊民보다 낮은 등급으로 설정하여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국가가 기술을 독점하고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前漢 중기 이후로 銘文 상에 耆夫와 그 보좌격인 佐가 점차 사라지는데, 이 명문상의 부재는 관영 수공업 생산에서 민영 수공업 생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sup>147)</sup> 이와 같이 국가의 통제가 뚜렷한 수공업 분야도 점차 국가의 독점을 포기하고, 민간의 생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현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高祖 연간에는 얼마 가지 않아 금지하기는 했지만,<sup>148)</sup> 화폐의 주조 또한 정부가 아닌 민간에게 주조를 맡겨 莢錢이라는 小錢이 만들어 지는 등,<sup>149)</sup> 국가 운영이 차츰 민간의 힘을 흡수하고 가능한 한 경비절감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 養馬의 활성화가 官營 養馬 산업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중앙집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간 산업의 활성화는 비대해진 관노비의 수를 줄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146) 金秉駿, 『中國古代南方地域の水運』, 藤田勝久 編, 『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傳達』, 東京: 汲古書院, 2011.

147) 김동오, 『古代 中國의 工匠과 技術 통제 - 分業 생산과 工官 조직 분석을 중심으로 -』, 『東洋史學研究』 117, 2011, pp.21-22.

148) 文帝 시기에 들어와 다시 민간에서 鑄錢하는 것을 허락하였다(『史記』 卷22 『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p.1126, “(文帝)五, 除錢律, 民得鑄錢.”).

149) 『史記』 卷30 『平準書』 p.1417, “漢興, 接秦之弊, 丈夫從軍旅, 老弱轉糧餽, 作業劇而財匱, 自天子不能具鈞駟, 而將相或乘牛車, 齊民無藏蓋. 於是爲秦錢重難用, 更令民鑄錢.”

그러나 말의 국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부득이 다시금 국가에 의한 말의 관리 방침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景帝・武帝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다시 빈번한 전쟁이 일어났다. 吳楚七國의 반란과 匈奴와의 공방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전국토의 말을 중앙으로 집중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전쟁의 증가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말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말의 사육에 필요한 세금도 증가하였다. 전한 초기 二年律令에서 추고세를 감액했던 것과 달리, 武帝는 軍馬의 비용으로 쓸 세금을 증액 징수하였다. 漢代에는 3세 이상 14세까지의 모든 미성년자에게 매 1년마다 20錢씩 징수하는 口賦錢이 있었는데, 武帝 시기에 들어와 1인당 3錢이 추가되어 총 23錢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 추가된 3錢의 증액 분은 軍馬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50)</sup>

앞서 芻藁稅를 錢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매년 71錢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했다면, 3錢의 금액은 71錢의 약 1/24에 해당한다. 二年律令 시기에 감액된 戶당 15斤은 약 2錢인데, 武帝에 들어와 다시 3錢을 증액했다면 결과적으로 秦代 이전의 稅額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 시기에는 세금의 증가뿐 아니라 다시 관영 양마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조치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景帝 때에 苑馬를 늘린 일이나,<sup>151)</sup> 封君 이하 三百石 이상의 吏에게 말을 거두어 亭에서 증식시켰다는 亭母馬 제도가<sup>152)</sup> 바로 그것이다. 민간으로부터 말을 취하고 후에 돈으로 보상하는 貰馬 제도도 실질적으로는 약탈성과 강제성을 가졌다고 평가될 만큼,<sup>153)</sup> 상당히 공격

150) 平中客次는 口賦는 前漢 초기부터 7세 이상 14세 이하의 남녀에게 23錢을 과세한 것이며, 武帝시대에는 그 중의 3錢이 軍馬費로서 국가재정에 돌려지고 또한 그 징수 연령도 3세로 인하된 것으로 고찰하였다(平中客次, 『漢代の馬口と錢口錢』, 『中國古代の田制と稅法: 秦漢經濟史研究』, 京都: 東洋史研究會, 1967).

151) 『史記』 卷30 『平準書』, p.1419, “孝景時, …… 益造苑馬以廣用”

152) 『史記』 卷30 『平準書』, p.1439, “車騎馬乏絕, 縣官錢少, 買馬難得, 乃著令, 令封君以下至三百石以上吏, 以差出牝馬天下亭, 亭有畜牝馬, 歲課息.”

153) 李洪波, 『兩漢時期的馬政與邊疆安全』,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p.9.

적인 태세로 말이라는 자원을 중앙에 집중시키려 하였던 것 같다.

(武帝) 5月, 吏와 民의 말을 등록(籍)하여 車·騎馬의 [용도로] 보충하였다.<sup>154)</sup>

이 기사에 따르면 漢武帝 太初 2년(기원전 103)에 吏와 民의 私有馬를 冊에 篇籍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잇따른 전쟁으로 인해 말의 수요가 커졌던 때이고, 이에 민간의 말을 기록하는 장부를 만들어 戰馬에 필요한 말을 더 빨리 확충하려 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여러 정책들의 배경에는 그 이전 시기에 민간 養馬가 점차 활발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민간으로부터 貫馬나 亭母馬를 모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당시 민간에 말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昭帝 이후의 추이

그러면 昭帝 이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 무렵부터는 다시 관영 養馬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

(昭帝) 天下의 亭母馬 [제도] 및 馬弩關 [제도를] 폐지하였다.<sup>155)</sup>

(元帝) 大官에게 명하여 수라의 반찬과 樂府의 인원을 줄이며, 苑馬를 줄였다.<sup>156)</sup>

(成帝) 六廐·技巧官을 없애고……罷太子의 博望苑을 없애, 종친 중 朝請하는 자에게 [말을] 하사함으로써 乘輿하는 廐馬를 줄였다.<sup>157)</sup>

154) 『漢書』 卷6 「武帝紀」 太初2年5月條, p.201. “籍吏民馬, 補車騎馬. [師古曰: 「籍者, 總入籍錄而取之.」]”

155) 『漢書』 卷7 「昭帝紀」 始元5年夏條, p.222, “罷天下亭母馬及馬弩關”

156) 『漢書』 卷9 「元帝紀」 初元元年6月條, p.280, “令大官損膳, 減樂府員, 省苑馬.”



이 기사들을 보면 昭帝 시기부터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官營의 養馬를 줄이는 노력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亭母馬 제도는 官에서 보유하는 말의 수를 늘리기 위해 亭에서 새끼 말을 증식시키는 방법이었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亭에 母馬를 배치함으로써 말의 수를 늘리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생산을 통한 말의 증식을 도모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亭母馬를 없앤다는 것은 더 이상 관영 양마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의지는 몇 년 후에 국가의 苑 중 하나를 폐지함으로써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 같다.<sup>157)</sup> 이후에도 관영 養馬場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sup>159)</sup> 양마의 관영 생산 비중을 줄이는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오히려 景帝·武帝의 정책들이 임시적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武帝 이후 관영 양마를 강화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亭母馬 제도를 폐지하고 苑馬의 수를 줄이는 등 관영의 말을 분산시켰다. 세금 역시 口賦錢의 개시연령을 3세에서 7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증액된 군비를 다시 감소시켰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러한 관영 양마의 축소는 사회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武帝 이후 흉노와의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呼韓邪單于가 漢에 입조할 정도로 극렬했던 군사적 압박

157) 『漢書』卷10『成帝紀』建始2年條, p.306. “罷六廐、技巧官。……秋, 罷太子博望苑, 以賜宗室朝請者, 減乘輿廐馬。”

158) 『漢書』卷7『昭帝紀』元鳳3年春正月條, p.229, “罷中牟苑賦貧民.”

159) “罷苑馬”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余華靑은 苑馬를 줄인 것이지 결코 牧師苑 자체를 撤廢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余華靑, 『秦漢邊郡牧師苑의興衰及其影響』, 『人文雜誌』1984-1, p.101). 그의 의견에 따르면 ‘罷’의 의미가 ‘줄이다’라는 뜻이 되는데, 元帝의 “省苑馬”의 경우 ‘省’이란 표현을 따로 사용하였으므로, ‘罷’를 ‘줄이다’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傅樂治는 이것이 邊郡에 존재한 牧師苑을 폐지하여 內郡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석하였다(傅樂治, 『漢匈奴戰爭與自然環境的關係』, 『簡牘學報』5, 1977, p.375). 그러나 內郡으로 牧師苑을 옮겼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시대의 “罷苑馬” 표현이 등장할 때는 맥락상, 어딘가로 牧師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文意 그대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昌彼得은 武帝 시기 牧師苑을 한번 폐지했다가, 昭帝 이전에 다시 회복된 것이라고 여겼다.

이 해소되고 나서야, 일련의 축소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상 국가가 재정 문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관영 養馬의 규모를 줄여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관영 양마의 축소는 前述한 민간 양마 권장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아무리 대내외적으로 사회가 안정되더라도,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 손쉽게 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간 양마의 성행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관영 양마의 축소·폐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河西 지역에서 발견되는 출토자료들은 그러한 사정을 여실히 반영한다. 家畜으로 쓰이는 말의 신고 기록이라든지<sup>160)</sup> 상거래에 사용되는 운송용 말의 출입 기록 등이 다수 발견되어, 당시 민간에서도 말의 需給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그보다 흥미로운 것은 懸泉置에서 발견된 『傳馬名籍』이다.

傳馬一匹, 駟, 牡, 左剝, 決兩鼻兩耳數, 齒十九歲, 高五尺九寸 ……

私財物馬一匹, 誠, 牡, 左剝, 齒九歲, 白背, 高六尺一寸, 小. 補縣(懸)泉置傳馬缺.

傳馬一匹, 誠, 乘, 白鼻, 左剝, 齒八歲, 高六尺, 駕, ? 聖, 各曰全(?) 廐. 厶 卩. …… 尺六寸, 駕名曰葆辜.

私財物馬一匹, 駟, 牡, 左剝, 齒七歲, 高五尺九寸, 補懸泉置傳馬缺.

建始二年三月戊子朔庚寅, 懸泉廐嗇夫欣敢言之, 謹移傳馬名籍一編, 敢言之.<sup>161)</sup>

이 명적은 成帝 建始 2년(기원전 31) 懸泉의 廐嗇夫가 상계한 문서의 일부로, 본래 총 열 마리의 傳馬의 신상을 기록한 名籍이다. 傳馬名籍이란 말 그대로 傳馬를 등록한 문서인데, 그 내용으로 말의 종류와 털 색깔, 나이, 신

160) 『肩水金關漢簡』 73EJT24:538, p.6, “始四年計乘所占畜馬一匹輶車一乘”; 『居延漢簡』 合19.44, p.32, “張掖酒泉敦煌郡乘家所占畜馬”

161) 『懸泉置漢簡』 V 1610②:10-20 「傳馬名籍」, pp.81-82.

장, 이름, 표식 등 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기록의 나열 중에 ‘私財物馬’라고 명시된 부분이다. 私財物馬를 기록함에 서술상의 특징을 보면 일반 傳馬와 거의 동일하지만, ‘私財物馬’의 경우 이름을 따로 적지 않고 簡 말미에 “補懸泉置傳馬缺”이라고 적어 이들이 새롭게 傳馬가 되었음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私財物馬’는 본래부터 懸泉置 혹은 다른 우정기구에 속해 있던 존재가 아니라, 출처가 민간이었음은 분명하다. 懸泉置漢簡의 정리소조는 이에 대해 漢代에 私馬로 참전하거나 북방에 주둔한 경우를 들어, 개인 소유의 말이라고 이해하였다. 하지만 昭帝 始元 4년에 민간에서의 말 공출을 금지시켰던 사실을<sup>162)</sup> 통해 보건대 일방적인 私馬를 징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먼저 다음의 일례를 보자.

● 傳馬死二匹，負一匹，值萬五千，長・丞・掾・嗇夫負二，佐負

—163)

이 문서는 傳馬 두 마리가 죽어, 그 중 한 마리분에 대한 배상을 몇몇의 관리들이 분담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官吏들에게 징수한 배상금은 다시 傳馬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傳馬는 항상 일정 수량이 配備되어 있어야 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부족분을 메워야 했다. 『傳馬名籍』에서 ‘말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私財物馬’를 懸泉置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은 동일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傳馬名籍이 작성된 元帝 建始 2년은 대규모 군사 동원이 없었던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懸泉置의 傳馬가 缺損된 이유는 말의 사망에 의한 것일 확률이 크다. 지금까지 공표된 懸泉置 간독 중에는 傳馬의 손실과 관련한 문서가 몇 개 보이는데, 모두 말의 사망을 보고하는 내용이다.<sup>164)</sup> 즉 『傳馬名籍』의 ‘私財物馬’ 반입은 보통의

<sup>162)</sup> 『漢書』卷7『昭帝紀』始元4年秋7月條, p.221, “往時令民共出馬, 其止勿出.”

<sup>163)</sup> 『懸泉置漢簡』 I 0205②:8, p.18.

<sup>164)</sup> 『懸泉置漢簡』 I 0111②:2, pp.84-85, “傳馬一匹, 馳騁, 乘, 左剝, 齒九歲, 高五尺六寸, 名曰蒙華. 建昭二年十二月丙申病死, 賣骨肉, 受錢二百一十.”; 同書 0116②:69, p.85, “效穀移建昭二年十月傳馬薄(簿), 出縣(懸)泉馬五匹, 病死, 賣骨肉, 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낫고, 그렇다면 민간의 말을 공출할 필요가 없이 관리의 과징금 혹은 죽은 말의 판매대금으로, 傳馬를 구입하였다고 상정할 수 있다.

官에서 모종의 용도로 말을 매매하는 기록들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 해 주는 것 같다.

元延 2년(기원전 11) 7월 乙酉日, 居延令인 尙과 丞인 忠이 지나가는 縣·道·河·津·關에 보낸다. 亭長인 王豐을 보내 詔書로써 酒泉에서 騎馬를 산다. 敦煌 張掖郡 중에 傳舍에 종사하는 자는 律令과 같이 하라. 守令史 詡·佐 褒가 7月 丁亥에 出.<sup>165)</sup>

이것은 成帝 시기 居延의 亭長이 酒泉에 가서 말을 구입할 목적으로 발급 받은 통행증의 일부이다. 騎馬의 구입 사례이기는 하지만 관부에서 사용할 말을 구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傳馬를 국가에서 공급받은 경우에는 ‘受’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sup>166)</sup> 위의 경우는 酒泉의 모처에서 民이 소유하던 말을 구입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본래 관부에서 필요한 물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례 이외에도 관부에서 말을 매매하는 모습을 전하는 기록들이 존재하므로,<sup>167)</sup> 당시 이미 일상적으로 말의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68)</sup> 따라서 앞의 『傳馬名籍』의 ‘私財物馬’는 민간의 말을 국가에서 傳馬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던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통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시 민간 양마업이 성행하고 있었고, 국가는 필요에 따라 이를 통해 말을 공급받기도 했다

錢二千七百冊, 校錢簿(簿)不入, 解……”

165) 『居延漢簡』 合170.3A, p.271, “元延二年七月乙酉居延令尙丞忠移過所縣道河津關遣亭長王豐以詔書買騎馬酒泉 敦煌張掖郡中當舍傳舍從者如律令 / 守令史詡佐褒七月丁亥出”(밑줄은 필자 강조)

166) 『懸泉置漢簡』 II0115④:13, p.85, “入傳馬三匹, 皆牡, 受郡庫.”

167) 『居延漢簡』 合63.34, p.112, “[ ]詣官封符 爲社市買馬[ ]”

168) 『居延漢簡』 合171.9, p.272, “[ ] 買馬牛持刀劍[ ]”

는 점이다.

주의할 부분은 居延 지역의 관리들이 酒泉까지 가서 騎馬를 샀다는 점이다. 다음은 풍요로운 가축과 성공적인 통치로 안정된 河西四郡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다.<sup>169)</sup>

武威[郡의] 서쪽으로는 본디 匈奴 昆邪王과 休屠王의 땅이었으나, 武帝 시기에 그들을 몰아내고 처음으로 네 개의 郡을 두니, 이로써 西域과 통하고 南羌·匈奴를 격절하였다. 땅은 넓고 民은 적으며 水草는 畜牧에 알맞으니, 涼州의 가축은 天下를 넉넉하게 했다. 변방을 지키고 二千石[의 관리가] 다스리게 하여, 모두 兵馬 [기르는 것]을 힘쓰도록 하였다”<sup>170)</sup>

이에 따르면 하서의 번영은 牧畜을 기초로 하였는데, 특히 西域, 즉 羌胡와의 교역이 그 밑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71)</sup> 後漢 이후 이곳이 胡市의 중심지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懸泉置에서 발견된 『康居王使者冊』<sup>172)</sup>에 따르면 서역에서 오는 조공사절단

169) 河西四郡 개발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은 關東의 백성을 遷徙시켜 그곳에 거주하며 땅을 개간하게 하는 것과 戍卒을 파견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변경의 수비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이성규, 『中國 古代 帝國의 統合性 提高와 그 기제 - 民·官의 移動과 帝國意識의 形成을 중심으로 -』, 『中國古代史研究』 11, 2004).

170) 『漢書』 卷28下 『地理志』下, pp.1644-1645. “自武威以西, 本匈奴昆邪王、休屠王地、武帝時攘之, 初置四郡, 以通西域, 隔絕南羌、匈奴. 地廣民稀, 水草宜畜牧, 故涼州之畜爲天下饒. 保邊塞, 二千石治之, 咸以兵馬爲務.”

171) 『後漢書』 卷31 『孔奮傳』, p.1098, “時天下擾亂, 唯河西獨安, 而姑臧稱爲富邑, 通貨羌胡, 市日四合, 每居縣者, 不盈數月輒致豐積.”(밑줄은 필자 강조)

172) 『懸泉置漢簡』 II0216②:877-883 『康居王使者冊』, pp.118-119, “康居王使者楊伯刀、副扁闐, 蘇擅王使者、姑墨副沙困、卽貴人爲匿等皆叩頭自言, 前數爲王奉獻橐佗入敦煌<sup>877</sup>關縣次贖食至酒泉昆歸官, 太守與楊伯刀等雜平直(值)肥瘦. 今楊伯刀等復爲王奉獻橐佗入關, 行直以次<sup>878</sup>食至酒泉, 酒泉太守獨與吏直(值)畜, 楊伯刀等不得見所獻橐佗. 姑墨爲王獻白牡橐佗一匹, 牝二匹, 以爲黃, 及楊伯刀<sup>879</sup>等獻橐佗皆肥, 以

이 酒泉에 도착하여 가지고 온 봉헌 물품을 酒泉 관부에 ‘매매’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다.<sup>173)</sup> 그 물품은 주로 낙타나 소, 말 등의 가축으로 생각된다.<sup>174)</sup> 더욱이 後漢시대에 들어가면 羌胡와의 교역은 酒泉의 胡市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酒泉으로 ‘私市’하러가는 내지인의 통행증도 여럿 발견되어<sup>175)</sup> 酒泉에서의 시장이 얼마큼 발달했는지 가늠케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河西四郡의 개척 이후로 胡市가 더욱 성행하여, 前漢 후반이 되면 말의 공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리라 생각된다.<sup>176)</sup> 이처럼 官營 양마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국가는 말이 필요할 때 수시로 매매를 통해 조달이 가능하였다.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관영으로 직접 말을 기르는 것보다 수시로 매매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평균적 말 가격이 4,000~5,000錢이라고 볼 때, 말의 4~5년 식비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말은 당연히 국가에서 상비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지나친 잉여는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초래한다. 그렇다고 혹시 모를 군사적 수요 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민간 양마는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대책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爲瘦，不如實，寃。<sup>880</sup>永光五年六月癸酉癸酉，使主客部大夫謂侍郎，當移敦煌太守，書到驗問言狀。事當奏聞，毋留，如律令。<sup>881</sup>七月庚申，敦煌太守弘、長史章、守部候脩仁行丞事，謂縣，寫移書到，具移康居蘇壇王使者楊伯刀等獻橐佗食用穀數，會月廿五日，如律令。／掾登、屬建、書佐政光。<sup>882</sup>七月壬戌，效穀守長合宗，守丞、敦煌左尉忠謂置，寫移書到，具寫傳馬止不食穀，詔書報會月廿三日，如律令。／掾宗、齋夫輔。”

- 173) 김병준, 『敦煌 懸泉置漢簡에 보이는 漢代 邊境무역 - 삼한과 낙랑군의 교역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국 출토 외래유물: 초기철기~삼국시대』, 대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p.1394.
- 174) 이성규, 『中國 古代 帝國의 統合性 提高와 그 기제 - 民·官의 移動과 帝國意識의 형성을 중심으로 -』, p.66
- 175) 『居延漢簡』 合37.29, p.61, “□與同里張利中自言爲家私市張掖酒泉□□持□□□□” ; 同書 合36.3, p.57, “□道鳴沙里陵廣地爲家私市張掖酒泉□□□□□□□□門亭鄯河津金關毋苛止錄復傳敢言之 □如律令 / 掾不害令史應 四月甲戌入”
- 176) 『肩水金關漢簡』(甘肅簡牘博物館 等 編, 『肩水金關漢簡(壹)』 中冊, 上海: 中西書局, 2011) 73EJT5:64, p.111, “隧長弗轉關嗇中夫持馬四匹畜牛八用牛一軺車一乘牛車一兩歸養”

## 맺음말

I 장 1절에서는 秦漢시대 국가가 말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원칙 하에서 취급하고 제도를 만들었는지 살펴보았다. 秦漢 律令의 내용을 모두 살펴 말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추려본 결과 말 관련 규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반에 걸쳐 말과 관련한 법률이 지극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추려낸 律令을 다시 내용에 따라 나뉘도록 분류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여 秦漢시대 馬政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秦漢시대에는 말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말은 군사, 운송, 騎乘 등 그 용도가 하나로 한정되지 않고, 사육하는 것만 해도 사료 공급, 사육장 관리, 사육 인원 등 관리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따라서 관련 업무가 각각 분산되어 있되, 상황에 따라 다종의 부서 혹은 책임자가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은 律令으로 규정해 일률적인 처리를 강제했으며, 철저히 官吏에게 책임을 지우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養馬의 부담을 전가하였다.

이처럼 秦漢시대 馬政의 방침은 사료의 지급부터 이용까지 律令에 의거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말의 관리 전반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것이었다. 말은 국가의 기반물자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장악하는 국영 위주의 양마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官營의 대상은 국가의 수요를 위한 말에 해당한다. 필요한 것은 自給하는 체계로, 물자의 품질을 보장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국영 양마업의 부담 정도를 알 수 있다면,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반물자를 확보하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I 장 1절에서는 秦漢代 말의 수요가 어떠한 추세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가에서 말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말의 수요가 증가하면 국가가 투

입해야 하는 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증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문헌 사료에 따르면 戰國末부터 기병의 도입과 郵驛 체계의 정비로 점차 말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말의 수량도 늘어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2절에서는 養馬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養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말의 사료였다. 일단 말에 지급하는 사료의 비용을 구하고 사람의 식비와 비교해 보았다. 율령 조문의 형식과 서술방법을 단초로 삼아 사료 급여량을 구한 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에 대하여 현대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또 이렇게 구한 수치를 가지고 錢으로 환산하여 사람의 식비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律令에 정해진 바에 근거하면 말의 사료비용이 사람의 식비에 비해 세 배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官營 養馬의 비용은 民間에게서 거두는 芻藁稅로 충당했기 때문에, 말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부담은 커졌다. 일반 民이 내야 하는 芻藁稅는 錢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매년 약 71錢이었는데, 이는 열흘간 노동했을 때의 임금에 상당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었다. 특히 芻藁 생산량의 90% 이상을 국가에서 징수했기 때문에, 비용의 측면으로 보아도 엄청난 부담이었을 뿐더러 농민이 養馬할 수 있는 잉여 芻藁를 남김없이 가져가는 셈이었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국가 제도의 馬政 체계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시기별로 변화하는 내용과 그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前漢 초기의 律令인 二年律令을 秦律과 비교했을 때 芻藁稅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秦律에 규정된 芻藁 납부액보다 15斤, 즉 약 2錢이 감액된다는 것과 縣의 사용분을 제외한 芻藁는 모두 錢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가 비축할 수 있는 실물 芻藁의 감소를 의미하였다. 芻藁는 馬牛의 가축인 만큼 실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漢初의 국가 관리 체계의 이완 때문이었고, 동시에 민간 양마를 권장하는 국가의 의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말을 기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타적 官



營 양마에서 차츰 민간 양마를 장려하여 국가의 수요를 민간에서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말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시금 국가에 의한 말의 관리 방침을 채택하였다. 빈번한 전쟁이 일어났던 景帝·武帝 시기에는 말을 중앙으로 집중시켜야 할 수밖에 없었고, 漢初에 芻藁稅를 감액했던 조치와는 달리 군마 사육의 명목으로 미성년자의 세금을 3錢 인상한다. 二年律令에서 戶당 약 2錢의 芻藁稅를 감액하고, 다시 武帝 시기에 3錢을 증액하였다면, 결과적으로 民의 부담은 秦代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세금의 변화와 맞물려 국가의 馬政 역시 官營 양마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조치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빈도가 줄어드는 武帝 이후에는 다시 漢初와 같이 관영 양마의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회귀한다. 재정문제를 이유로 景帝·武帝 시기의 養馬 정책을 차례차례 폐지하고 관영 養馬場을 축소하거나 없앴으로써, 양마의 관영생산 비중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다. 증액된 세금도 감소시켰다. 대신 민간 양마를 권장하여 언제든 필요시 민간으로부터 말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武帝 이후에는 민간에서 私馬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官에서 騎馬나 傳馬를 민간에서 구입한다는 사례는 당시 이미 일상적으로 민간의 말 매매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시기의 河西四郡의 개척으로 인한 胡市의 성행과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관영 양마를 축소하고 민간 양마로 대체하는 국가의 기대를 실현가능하게 하였다. 馬政의 방향이 내부의 필요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인지 의존적인지에 따라 공급하는 주체의 비중이 변하였다. 즉 말의 수요나 시대적 분위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가는 기반물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확보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고대 중국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며 자원의 관리 또한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이러한 기반물자의 관리가 확장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츰 官이 모든 주요

산업을 독점하겠다는 방침을 포기하고, 점차 민간에게로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결코 중앙집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제든 다시 필요에 따라 중앙으로 물자를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기층조직까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漢은 제국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표면적으로는 秦代보다 방임적으로 보였을지라도, 그 이면은 간접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민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漢帝國이 보다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장악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後漢의 馬政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後漢의 馬政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前漢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後漢시대에는 민간 양마의 발전이 눈에 띄는데, 이는 後漢의 사회역량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민간 養馬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집권적 養馬 방식이 불필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前漢의 관영 양마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 이상 後漢의 관영 養馬가 실패했다고 볼 수만도 없을 것 같다. 더욱이 匈奴가 분열하여 더 이상 漢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군사적인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군이 관영 養馬를 확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養馬를 통해 국가에서 수시로 말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일부는 국가에서 기본적인 수급을 해결했지만, 일부는 민간에서 조달하는 편을 택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 參考文獻

### 1. 史料

#### (1) 文獻史料

『史記』(中華書局 標點校勘本).

『漢書』(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後漢書』(中華書局 標點校勘本).

『玉海』([宋]王應麟 纂,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上海: 上海書店, 1987).

『元典章』(陳高華 等 點校,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11).

『周禮正義』([清]孫詒讓 撰, 王文錦·陳玉霞 點校, 十三經清人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7).

『周禮註疏』(李學勤 主編, 『周禮註疏』,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莊子』([清]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莊子集釋』, 新編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2006).

『春秋左傳』(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81).

『漢官舊儀』([清]孫星衍 等 輯, 周天遊 點校, 『漢官六種』, 北京: 中華書局, 2008).

#### (2) 簡牘資料

『居延漢簡釋文合校』(謝桂華·李均明·朱國昭, 北京: 文物出版社, 1987).

『居延新簡-甲渠候官』(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編, 北京: 中華書局, 1994).

『肩水金關漢簡(壹)』(甘肅省簡牘保護研究中心 等 編, 上海: 中西書局, 2011).

『肩水金關漢簡(貳)』(甘肅省簡牘保護研究中心 等 編, 上海: 中西書局, 2012).

『肩水金關漢簡(參)』(甘肅簡牘博物館 等 編, 上海: 中西書局, 2013).

- 『敦煌漢簡(下)』(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編, 北京: 中華書局, 1991).
- 『敦煌懸泉漢簡釋粹』(胡平生·張德芳 編撰,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 『算數書』(張家山漢簡『算數書』研究會 編, 『漢簡『算數書』-中國最古の數學書-』, 京都: 朋友書店, 2006).
- 『疏勒河流域出土漢簡』(林梅村·李均明, 北京: 文物出版社, 1984).
- 『睡虎地秦墓竹簡』(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北京: 文物出版社, 1990).
- 『嶽麓書院藏秦簡(肆)』(陳松長 主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5).
- 『嶽麓書院藏秦簡(伍)』(未刊).
- 『銀雀山漢墓竹簡(壹)』(銀雀山漢墓竹簡整理小組 編, 北京: 文物出版社, 1985).
- 『二年律令與奏讞書』(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里耶秦簡(壹)』(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12).
- 『張家山漢墓竹簡』(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北京: 文物出版社, 2001).

## 2. 研究書

- 니시노 히로요시 저, 김석희 역, 『말과 황하와 장성의 중국사』, 서울: 북북서, 2007.
- 모토무라 료지 저, 최영희 역, 『말이 바꾼 세계사』, 서울: 가람기획, 2005.
- 사라 필리너 저, 한국마사회 경마연구원 편역, 『말의 영양과 사양관리』, 과천: 한국마사회, 2002.
- 스티븐 부디안스키 저, 김혜원 역, 『말에 대하여』,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5.
- 裘錫圭, 『古代文史研究新探』,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2.
- 譚宗義, 『漢代國內陸路交通考』, 香港: 新亞研究所, 1967.
- 梁家勉 主編, 『中國農業科學技術史稿』, 北京: 農業出版社, 1989.
- 黎虎, 『漢唐外交制度史』, 蘭州: 蘭州大學出版社, 1998.
- 謝成俠, 『中國養馬史』, 北京: 科學出版社, 1959.
- 深剛, 『居延漢簡語辭匯釋』, 北京: 科學出版社, 2008.

- 余英時,『漢代貿易與擴張：漢胡經濟關係的研究』,臺北: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2008.
- 袁仲一,『秦始皇陵兵馬俑研究』,北京:文物出版社,1990.
- 張曉東,『漢唐漕運與軍事』,上海:上海書店出版社,2010.
- 丁邦友,『漢代物價新釋』,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9.
- 周振鶴,『西漢政區地理』,北京:人民出版社,1987.
- 中國公路交通史編審委員會 編著,『中國古代道路交通史』,北京:人民交通出版社,1994.
- 陳偉 主編,『里耶秦簡牘校釋』第1卷,武漢:武漢大學出版社,2012.
- 彭浩,『張家山漢簡《算數書》註譯』,北京:科學出版社,2001.
- 郝樹聲·張德芳,『懸泉漢簡研究』,蘭州:甘肅文化出版社,2009.
-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簡牘研究班 編,『漢簡語彙:中國古代木簡辭典』,東京:岩波書店,2015.
- 大庭脩,『漢簡研究』,京都:同朋舍出版,1992.
- 富谷至 編,『邊境出土木簡の研究』,京都:朋友書店,2003.
- 富谷至 編,『江陵張家山二四七號墓出土漢律令の研究』,京都:朋友書店,2006.
- 夫馬進 編,『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京都:京都大學學術出版會,2007.
- 山田勝芳,『秦漢財政收入の研究』,東京:汲古書院,1993.
- 三上次男·護雅夫·佐久間重馬,『中國文明と內陸アジア』,東京:講談社,1974.
- 影山剛,『中國古代の商工業と專賣制』,東京:東京大學出版會,1984.
- 伊瀨仙太郎,『東西文化の交流』,東京:弘文堂,1960.
- 伊瀨仙太郎,『中國西域經營史の研究』,東京:嚴南堂,1968.
- 佐竹靖彦,『中國古代の田制と邑制』,東京:岩波書店,2006.
- 平中苓次,『中國古代の田制と税法:秦漢經濟史研究』,京都:東洋史研究會,1967.
- シルクロード學研究センター 編,『古シルクロードの軍事・行政システム - 河西回

廊を中心にして』, 奈良: シルクロード學研究センター, 2005.

Hsu, Cho-yun, *Ancient China in Transition: An Analysis of Social Mobility, 722-222 B.C.*,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Liu, Li and Xingcan Chen, *State Formation in Early China*, London: Duckworth, 2003.

Piggott, Stuart, *Wagon, Chariot and Carriage: Symbol and Status in the History of Transport*,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2.

### 3. 研究論文

김동오, 「古代 中國의 工匠과 技術 통제 - 分業 생산과 工官 조직 분석을 중심으로 -」, 『東洋史學研究』 117, 2011.

김병준, 「敦煌 懸泉置漢簡에 보이는 漢代 변경무역 - 삼한과 낙랑군의 교역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국 출토 외래유물: 초기철기~삼국시대』, 대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김용은, 「漢初 國家財政論의 推移」, 『東洋學研究』 5, 1999.

설배환, 「秦・漢時代 芻・槁稅와 그 이용 新釋」, 『慶尙史學』 26, 2010.

송진, 「중국 고대 변경 출입과 그 성격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오준석, 「秦漢代の 郵傳기구와 문서전달체계」, 『東洋史學研究』 109, 2009.

이성구, 「春秋戰國時代의 國家와 社會」,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講座中國史』 1, 서울: 지식산업사, 1989.

이성규, 「戰國時代 官營産業의 構造와 性格」, 『東方學志』 30, 1982.

이성규, 「戰國時代 小農民의 생활」,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1, 서울: 지식산업사, 1994.

이성규, 「中國 古代 帝國의 統合性 提高와 그 기제 - 民・官의 移動과 帝國意識의 形成을 중심으로 -」, 『中國古代史研究』 11, 2004.

- 이성규, 「秦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 - 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3-1, 2014.
- 정하현, 「秦漢代 말[馬]의 이용과 需給 構造」,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1,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최재영, 「唐 前期 馬政과 隴右 牧地 經營」, 『中國古中世史研究』 21, 2009.
- 賈麗英, 「漢代“名田宅制”與“田宅逾制”論說」, 簡帛網, 2007.08.09.
- 高凱, 「略論漢代官營鹽鐵業의 利與弊」, 『鄭州大學學報』, 1992-3.
- 高敏, 「論秦漢時期畜牧業의 特徵和局限」, 『鄭州大學學報』 1989-2.
- 高敏, 「論西漢前期期、稟稅制度的變化發展 - 讀《張家山漢墓竹簡》筭記之二」, 『鄭州大學學報』 2002-7.
- 龔留柱, 「關於秦漢騎兵의 幾個問題」, 『史學月刊』 1990-2.
- 龔留柱, 「秦漢時期軍馬의 牧養和徵集」, 『史學月刊』 1987-6.
- 郭孔秀, 「古代馬文化二題」, 『農業考古』 3, 2002.
- 郭俊然, 「漢代郵驛職官考 - 以出土資料爲中心」, 『五邑大學學報』 2014-1.
- 郭興文, 「論秦代의 養馬技術」, 『農業考古』 1985-1.
- 鄔文玲, 「里耶秦簡所見“戶賦”及相關問題瑣議」, 『簡帛』 8, 2013.
- 戴世君, 「雲夢秦律新解(六則)」, 『江漢考古』 2008-4.
- 孟古托力, 「騎兵建設推動養馬業의 發展 - 戰馬馬源之分析」, 『北方文物』 2005-3.
- 白建鋼, 「西漢步、騎兵兵種初探」, 『西北大學學報』 1986-1.
- 傅樂治, 「漢匈奴戰爭與自然環境의 關係」, 『簡牘學報』 5, 1977.
- 森鹿三 著, 姜鎮慶 譯, 「論居延簡所見의 馬」,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戰國秦漢史研究室 編, 『簡牘研究譯叢』 第1輯,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 孫銘, 「簡牘秦律中的田租征收事務」, 『農業考古』 2014-6.
- 宋濤, 「我國古代의 養馬業」, 『甘肅社會科學』 1994-5.
- 宋眞, 「漢代의 通行證制度與商人의 移動」, 簡帛網, 2009.06.20.

- 安忠義,「先秦騎兵的誕生及演變」,『考古與文物』2000-4.
- 安忠義,「漢代馬種的引進與改良」,『中國農史』2005-2.
- 安忠義,「漢武帝時期騎兵的興起與軍制改革」,『煙臺師範學院學報』2005-4.
- 楊明,「秦及漢初賦稅制度探究」,渤海大學 碩士學位論文,2014.
- 楊釗,「先秦時期的畜牧業」,『農業考古』1997-3.
- 楊振紅,「秦漢“名田宅制”說 - 從張家山漢簡看戰國秦漢的土地制度」,『中國史研究』2003-3.
- 余華青,「秦漢邊郡牧師苑的興衰及其影向」,『人文雜誌』1984-1.
- 余華青·張延皓,「秦漢時期的畜牧業」,『中國史研究』1982-4.
- 吳朝陽,「嶽麓秦簡《數》之“石”·穀物堆密度與出米率」,簡帛網,2013.01.30.
- 雍際春,「西漢牧苑考」,『中國歷史地理論叢』1996-2.
- 王素,「懸泉漢簡所見康居史料考釋」,榮新江·李孝聰 主編,『中外關係史: 新史料與新問題』,北京: 北京科學出版社,2004.
- 王裕昌·宋琪,「漢代馬政與養馬高峰」,『西北大學學報』2004-6.
- 王子今,「秦漢長城與北邊交通」,『歷史研究』1988-6.
- 王子今,「漢代河西長城與西北邊境地貿易」,中國長城學會 編,『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長春: 吉林人民出版社,1995.
- 王鑫·孟妍,「中國田賦制度變遷的探討」,『韓中關係研究』1-2,2015.
- 于振波,「從簡牘看漢代的戶賦與芻稟稅」,『故宮博物院院刊』2005-2.
- 于振波,「秦簡所見田租的征收」,『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2-5.
- 于振波,「秦律中的甲盾比價及相關問題」,『史學集刊』2010-5.
- 禹平,「論秦漢時期養馬技術」,『史學集刊』1999-2.
- 遊逸飛,「從軍區到地方政府 - 簡牘及金文所見戰國秦之郡制演變」,『臺大歷史學報』56,2015.
- 劉輝,「西漢傳驛馬之來源考述」,『樂山師範學院學報』2011-2.
- 李群,「我國古代的養馬技術」,『古今農業』1996-3.
- 李恒全,「從出土簡牘看秦漢時期的戶稅征收」,『甘肅社會科學』2012.
- 李洪波,「兩漢時期的馬政與邊疆安全」,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15.



- 張佳南,「從簡牘看秦的官營經濟」,鄭州大學 碩士學位論文,2015.
- 張濤,「秦漢騎兵起源及其發展新探」,『絲綢之路』1999-1.
- 張信通,「秦漢鄉裏賦稅制度和賦稅征收」,『中國經濟史研究』2012-1.
- 張俊民,「敦煌懸泉出土漢簡所見人名綜述(二) - 以少數民族人名爲中心的考察-」,『西域研究』2006-4.
- 張俊民,「敦煌懸泉出土漢簡所見人名綜述(一)」,簡帛網,2007-04-28.
- 張仲立,「關於鹵簿制度的幾點研究 - 兼論周五路乘輿制度特點」,『文博』1996-6.
- 臧知非,「說“稅田”:秦漢田稅征收方式的曆史考察」,『歷史研究』2015-3.
- 張鶴泉,「從秦簡看秦國軍馬需求的保障問題」,『鹹陽師範學院學報』28-3,2013.
- 趙夢涵,「西漢的養馬業」,『中國社會經濟史研究』1987-4.
- 朱繼平,「從《張家山漢簡》談漢初的戶賦與戶芻」,『江漢考古』2011-4.
- 朱德貴,「《史記》卷二二《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田租稅律”考」,『中國社會經濟史研究』2005-4.
- 朱利民·張憲民,「唐代馬政」,『唐都學刊』1994-10.
- 朱聖明,「秦至漢初“戶賦”詳考 - 以秦漢簡牘爲中心」,『中國經濟史研究』2014-1.
- 周作明,「秦漢車馬駕御賜馬制度管見」,『廣西師範大學學報』1988-2.
- 陳寧,「秦漢馬政研究」,蘇州大學 碩士學位論文,2006.
- 陳立正,「張家山漢簡所見西漢初期土地及賦稅制度」,『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2012-4.
- 陳芳,「秦牧苑考」,『文博』2008-5.
- 陳恩林,「中國古代騎術和騎兵考源」,『吉林師範大學學報』1991-2.
- 陳直,「漢代的馬政」,『西北大學學報』,1981-3.
- 沈明得,「漢代馬政研究」,臺灣國立中興大學 博士學位論文,2005.
- 彭文,「秦代的騎兵」,『軍事歷史』1994-5.
- 何平立,「略論西漢馬政與騎兵」,『軍事歷史研究』1995-2.
- 邢義田,「張家山漢簡《二年律令》讀記」,簡帛網,2006.01.14.

黃敬愚,「簡牘所見西漢馬政」,『南郡學壇』2006-5.

黃今言,「東漢軍事後勤的幾個問題」,『江西師範大學學報』1996-2.

高村武幸,「前漢西北邊境と關東の戍卒 -居延漢簡にみえる兵士出身地の検討を通じて-」,『駿台史學』110, 2000.

金秉駿,「中國古代南方地域の水運」,藤田勝久 編,『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傳達』,東京:汲古書院,2011.

木村正雄,「漢代の馬政について」,『立正史學』15, 1952.

濱谷秀雄,「唐代馬政の一斑」,『日本大學文學科研究年報』3-3, 1936.

森鹿三,「居延漢簡に見える馬について」,『東洋學研究:居延漢簡篇』,京都:同朋舍, 1975.

影山剛,「前漢鹽鐵專賣制の一考察 -特に鐵器生産過程を中心として-」,『岡山史學』10, 1961.

日比野丈夫,「河西四郡の成立について」,『中國歷史地理研究』,京都:同朋舍, 1977.

日比野丈夫,「漢の西方發展と兩關開設の時期について」,『中國歷史地理研究』,京都:同朋舍, 1977.

佐原康夫,「居延漢簡に見える物資の輸送について」,『東洋史研究』50-1, 1991.

佐竹靖彦,「商鞅田制考證」,『史學雜誌』96-3, 1987.

エノ・ギール,「中國古代の戰車に関わる諸資料と研究をめぐって」,宮宅潔 編,『中國古代軍事制度の總合的研究』,平成20-24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成果報告書, 2011.

## 中文摘要

# 论秦汉马政及其变化

金 宝 蓝

首尔大学校 东洋史系 硕士研究生

资源供给的确保和维系是国家体制运营的重要手段。既有研究多以重要资源（如青铜原料、盐等）的获取和运输论证早期国家或城市形成及发展的动因，将对资源的垄断视为使国家权力正当化的方式。此类资源在当时历史条件下，可谓人民生活及国家运营中不可或缺的“基本物资”。国家政权追求权力支配的基本原理决定了国家对此类资源的掌控，国家制度中的一部分即是资源运营中相关方法与政策的体现。对国家而言，基本物资的安定供给及相关系统的构建，可谓国家运营的关键。故围绕此类基本物资的观察，可加深对当时社会的理解，从而认识当时社会的若干特征。

古代中国存在诸多“基本物资”，其中马匹尤为重要。无论何时何地，马匹在前近代国家中均为不可缺少的资源。其主要用于两个方面，一是作为军需，用于战争，效力于国家的防御和扩张；二是作为为交通体系的一部分，服务于帝国的统合和连结。在相关需求急增的古代中国，马匹之意义尤其特殊。战术层面，骑兵的重要性日渐凸显；文书行政层面，邮驿之设置亦日益健全。对马匹的需求不断增加与多样化，新的制度也随之形成。

但是，既有研究对秦汉马政并无多少关注。相关论著多集中在农业史方面，以马的品种改良、养马技术的发展等内容为主，主张多为中国很早即“对养马非常重视”、“长期致力于良马的生产”等。另有研究集中在军事史方面，包括骑兵的种类、兵站的补给与调度中马的运用等。还有研究侧重于交通方面，如传驿马的运用。再者就是仪礼方面的研究，如不同身份条件下乘舆权限的差别等课题。

此类研究虽然提供了很多基本情报，使人们对古代中国马匹的运用有一定了解，但各有其专，论域有限，多倾向于片面强调马的某方面功能。

既往秦汉时期的马政研究，多困于史料之不足。但随着新出考古资料，如岳麓秦简等简牍文书的出现，使得大量言及马政的律令条文意外地出现在人们的研究视野当中。以此为契机，对秦汉马政这一课题的切实探讨也随之成为可能。本文意在探讨秦汉时期国家以怎样的制度确保马匹的供给与管理，把握马匹供需变化的时代走向，以此思考当时国家如何在制度层面有效地管理、掌控基本物资。

在 I 章1节中，本文将主要论述秦汉时代国家在怎样的原则下完成马的管理、设立相关制度。在通览秦汉律令中所有与马相关的内容后可知，马在律令中占有很大比例，且十分详细，秋毫可及。第2节将把前述条文按内容进行分类，总结其特征，进而分析秦汉时代马政的运营方式。涉及马政的多个官署间存在有机的联系，虽然相关事务由各个官署分散掌控，但可视情况由多个官署或责任人协同承办事务。同时，律令保障了此过程的协调运作，还彻底免除了官员的责任，转嫁养马负担。

如此，秦汉马政从饲料供给到马匹的使用，均依托律令完成。国家通过律令掌握并管控一切事宜。鉴于马作为基本物资的重要性，必须得到确保，尽管在经济、行政方面均有大量成本，国家仍会直接掌控以国营为主的养马业。

在 II 章1节，本文将观察秦汉时期马匹需求的变化趋势。根据史料，从战国末期开始，骑兵和邮驿系统不断得到强化，马匹的重要性日渐凸显，国有马匹的数量亦随之增加。在此类前提下，本文第2节试就马匹的养护成本进行了推测。在马匹的养护过程中最大的支出项目是饲料。笔者首先推算了投入在饲料上的成本，之后将之与人们的饮食费用进行了对比。根据律令可知，在马匹饲料上的投入比人们的饮食费用高三倍以上。官营养马业所需的费用，由征自民间的“芻稟税”充当。马匹数量越大，社会的负担就越大。一般民要纳付的芻稟税，大概是每年71钱，相当于10天的劳动报酬。不仅从税收来看，民众的税收负担很重，而且，由于芻稟产量的九成以上均被国家徵收，基本没有给民间留下养殖马匹的条件。

在 III 章，本文捕捉到了秦汉马政的若干变化，追索了此类变化的内容及其原因。笔者通过对比西汉早期的二年律令和秦律，确认了芻稟税的变化过程。相较

秦代，汉代芻橐税减少了15斤。除了各县所需的份量外，均需用钱纳付，这意味着国家芻橐蓄备的减少。其根本原因是汉初国家管理的松弛，以及国家劝奖民间养马的用意。国家考虑到经济侧面之负担，对民间养马的态度逐渐倾向于允许与鼓励。当然在面临亟需马匹的情况时，国家也不得不再次采取由国家集中管控马匹的方针。景帝、武帝时期，战争频繁，马匹不得不由中央集中管理，相关税金亦有增加。与税额的增加相对地，国家还对官营养马业的规模进行了扩大。

但随着汉初战争的减少，官方政策又再次回归，旨在缩小官营养马业的规模。由于财政方面的原因，景帝、武帝时期的养马政策被废止，官营生产养马场渐渐缩小，甚至消失；税额减少，民间养马得到鼓励。以此为基础，若国家需要，可随时从民间调拨马匹以充使用。有不少证据显示，武帝以后民间的私马有所增加，也存在官府从民间购入“骑马”或“传马”的例证，这意味着当时国家从民间购马的举动已经非常普遍。同一时期，随着河西四郡的凿通，胡市盛行，社会氛围平和，缩小效率低下的官营养马业比重，增加民间养马业比重、以取代官营养马业的官方预期，也具备了实现的可能。即国家随着马匹的需求变化与社会条件，通过适当地调节马政，有效地实现基本物资的管理与确保。

古代中国追求强有力的中央集权，以之主导资源的管理与国家的支配。随着时间流逝，基本物资的管理日渐扩大，相关成本不断增加，对国家财政而言可能成为非常大的负担。为解决此问题，国家逐渐放弃垄断主要产业的管理方针，转而允许，甚至鼓励民间的参与，使其比重上升。但这样的走向并不意味着国家对中央集权的丧失或放弃。相反，无论何时，如有需要，国家可再次将物资集中于中央。所以，国家权力应被理解为，足以从中央机构到基层组织贯彻其意志的有力存在。即便汉看似比秦“无为”，国家行为、政策更具弹性，但其依然通过间接制约的方式掌控人民。长期看来，汉帝国之政策可更有效地对人力、物力资源进行配置，财政方面更显健全。

关联词：秦汉，马政，芻橐，骑马，律令，骑士

学番：2013-20039